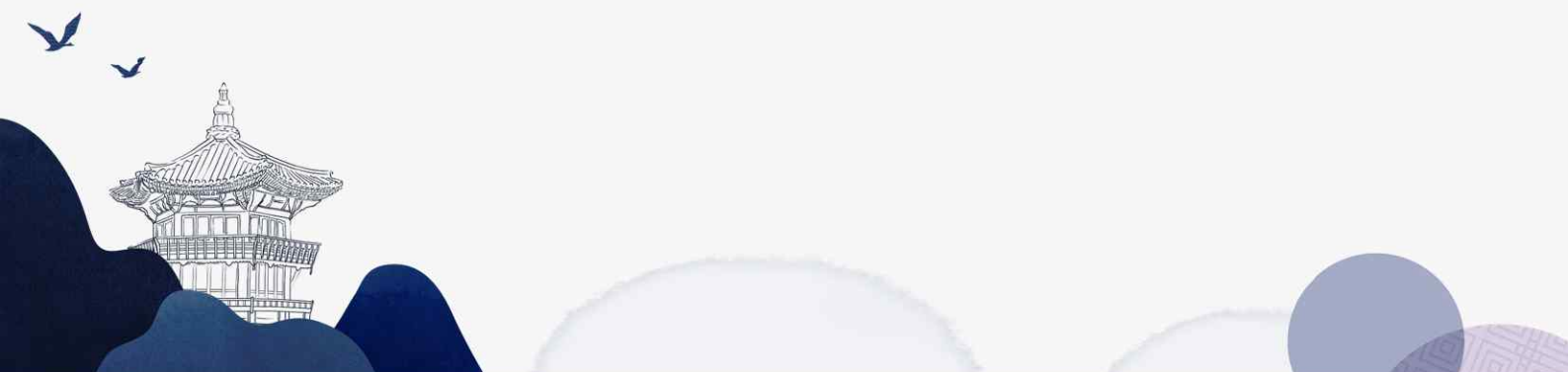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9
4	讲义	59
5	퀴즈	82
6	토론	88
7	자료	91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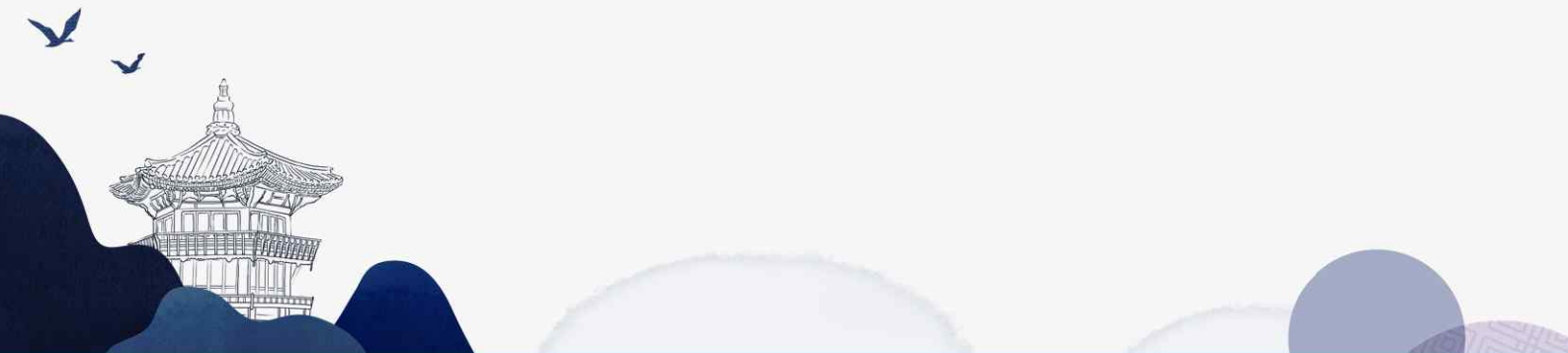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0
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0-1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구성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강의를 맡은 황재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열 번째 강의로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 강의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후속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장지연의 《만국사물기원역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기에, 우선 장과 항목의 구성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몇 부분을 뽑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문헌인 '유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오늘날의 관점에 어울리는 독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성격과 저술 과정, 그리고 학술사적 의의에 대해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비록 극히 일부입니다만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실제 내용을 감상할 것입니다. 오늘 다루지 못할 부분이 적지 않겠지만,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사용한 문체는 일종의 국한 혼용문입니다. 국한 혼용문은 대체로 한문보다는 이해하기 쉽지만, 이 책의 경우에는 서양의 사물, 사람, 사건 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를 음차(音借)한 한자로 표기하고 있어서 원문으로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제가 2014년에 펴낸 역주본을 활용하여 함께 읽어볼 생각입니다.

1909년에 간행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원본 분량은 250페이지 정도입니다만, 이 역주본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제법 두껍습니다.

한자로 표기된 고유명사를 현대식으로 복원하고, 원문의 인용 출처나 오류 등을 밝히며, 해당 항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현재로는 이 역주본에서 검토한 바를 중심으로 《만국사물기원역사》에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 역주본이 《태서사물기원》이 학계에 거론되기 이전에 간행된 것이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겠지만, 《태서사물기원》을 참고하면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역주본은 니시무라의 《서국사물기원》, 그리고 장지연이 작성한 원고본과의 대비를 거쳐 완성된 것이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태서사물기원》의 관련 구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원문의 표기대로 전체 구조를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 다만, 이번 강의는 역주본의 목차를 보여드리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어휘로 풀이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원문의 한자 표기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은 지난 강의의 자료나 혹은 역주본의 뒤에 부록으로 수록한 원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역주본에 수록한 원문은 원고본과의 대비 등을 거친 교감본입니다.

먼저 1장에서 7장까지의 목차입니다. 이 가운데 1, 2, 4, 5, 6장은 이번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목차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서 15장까지의 목차입니다.

16장에서 22장까지의 목차입니다. 22장 기계의 마지막 항목은 '각종 기기'라고 표기했는데,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항목의 원문 표기는 '기기'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언급한 사물이나 사건이 여기서 다시 언급되는 예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자 표기가 달리 나타납니다. 22장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서양 사물,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의 수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 독자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장에서 28장까지의 목차, 그리고 원문의 장 목차입니다.

1장에서 28장까지의 전체 구조는 유서의 일반적인 배열순서인 '천(天)-지(地)-인(人)-사(事)-물(物)'의 순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事)와 물(物)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는 이 시점에는 전통적인 유서에서는 수록할 필요가 없었던 '사물(事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이 구조는 크게는 《태서사물기원》을 참고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원본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검열을 위해 제출한 원고본과 실제 간행본이 현재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제로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본문 첫 부분입니다. 왼쪽은 원고본이며, 오른쪽은 간행본입니다. 둘 모두 중간에 행을 바꾼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서술하면서도, 다시 지역이나 사건이 달라지는 부분에 행을 바꾸는 방식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만국의 사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은 독자에게도 유용했을 듯합니다.

원고본에 검열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또한 검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정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원고본에서는 초고를 작성하다가 얻은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을 하면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는 활자본인 간행본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서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던 것과는 형편이 다른 셈입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원고본의 ‘정(井)’ 즉 우물 항목인데, 마지막에 일본에 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이것은 마땅히 연화석 조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간행본에서는 그 주석이 실제 간행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본에서의 우물 항목 마지막 부분이 간행본에서는 연화석 항목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물론 간행본의 ‘우물’항목에는 실제 이 구절이 빠집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간행본에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활자 항목 가운데 일본의 활자에 대한 서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고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초고 작성 이후에 보충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 경로가 지난 강의에서 언급한 ‘거울’의 경우처럼 검열인지 혹은 또 그것과 다른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 구절에는 상대적으로 오탈자가 많습니다. 또 문체도 다른 부분과 조금 다른데, 특히 “가등청정이가”와 같은 상당히 구어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울’에서 일본의 삼종신기 전체를 언급한 것과 같은 부자연스러움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활판’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상을 보태자면, 누군가 글이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말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고, 검열본을 제출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급히 그 정보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역주본을 소개하고 원본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만국사물기원역사》본문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문과 지리 부분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 천문과 지리

지난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역주본을 소개하고 원본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문과 지리 부분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28장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독법에서 유의할 만한 사항을 포함한 부분을 중심으로 몇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유서의 일반적인 항목 배열 즉 구조를 '천-지-인-사-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고 서두에 등장하는 먼저 것이 '천-지'입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용어로는 천문과 지리입니다.

제1장 천문과 제2장 지리의 목차입니다. 두 개의 장에 포함된 항목들은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살펴볼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1장에서 천신, 해와 달, 일기예보, 낮과 밤, 시간, 새벽과 황혼에 올리는 큰 종, 2장에서 지동설, 홍수, 지구일주 항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의 두 번째 항목인 천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 또는 하늘 자체를 신으로 이해하는 사례를 든 것입니다. 전근대의 '유서'와 《태서사물기원》의 양쪽에서 모두 찾아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장지연 나룸의 문화적 해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원문 이미지이고, 왼쪽은 번역문과 주석입니다. 먼저 《오경통의》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의 천신에 대한 이해를 뽑았고, 다음으로 유태인의 '기독교경'에서 보이는 천부 또는 천주의 사례를 거론하고,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하늘에 해당하는 표기, 그리고 천신에 대한 제사를 언급했습니다. 셋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경통의》는 한나라의 유향이 쓴 책인데, 여기에 호천상제를 천황대제나 태일로도 부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호천상제라는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오제'는 흔히 '삼황오제'라고 부르는 전설상의 제왕이 아니라, 오행에 따라 설정한 추상적 제왕입니다. 방위와 그에 따른 색을 연관 짓는 것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천부와 천주가 유가에서 말하는 상제와 같다는 언급은, 일종의 비교문화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서학 관련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하늘을 '한을'이라고 표기했다는 지적은, 언어로부터 역사를 유추하던 당시의 학풍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해와 달'입니다. '천문'에서 우주의 생성, 하늘에 있는 여러 별들, 그리고 기상 현상을 다루는 것이 유서(類書)의 일반적 구성이니, '해와 달'을 1장에서 다룬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서사물기원》에서도 1장 '천시'에서 해와 달을 다루었습니다. 다만 둘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동양 문헌에서 해와 달을 언급한 사례를 앞에 제시했는데, 주로 신화적인 영역에서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해자》와 《오경통의》에서는 널리 퍼진 신화적 이해를, 《회남자》에서는 신화적 이해에 바탕을 둔 당시의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당서》에서는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신라의 풍속을 가져왔습니다.

태서, 즉 서양의 일을 거론한 부분에서는, 해를 남신, 달을 여신으로 이해하던 신화적 사유를 먼저 말하고 점차 사정이 달라진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탈레스가 해와 달을 신으로 받아들였던 이전의 관습을 비판하고서 "태양은 별이니, 수증기가 변하여 이루어진 뜨거운 불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물체이며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낸다."와 같이 해명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탈리아의 갈릴레이가 관측과 실험으로 얻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덧붙였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는 표시가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란 《만국사물기원역사》가 간행된 1909년입니다.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시간적 거리를 확인하는 것은 이 책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살펴본 천신에서는 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천신'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일기예보입니다. 당시 용어로는 '천기예보'입니다. 오른쪽은 《태서사물기원》이고, 왼쪽은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원문과 번역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영국의 해군 소장 로버트 피츠로이가 1805년으로부터 항해에 익숙하여 날씨에 관심을 가졌는데, 일기예보의 제도를 처음으로 발명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된 바가 적지 않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태서사물기원》의 서술을 참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장지연은 《태서사물기원》의 서술을 간추리는 한편으로 '영국'을 '영吉利국'으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자들에게 영국보다는 영吉利국이 익숙한 표현이었을 듯합니다.



다음은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의 시작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동양에서는 해가 뜨면 낮, 해가 지면 밤이라고 여겼고, 자정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다는 일반적인 언급을 한 뒤에, 신라와 고구려에서 '나조'라는 말을 각기 낮과 저녁의 뜻으로 달리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고어에서 '나조'가 저녁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은 오늘날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신라에서 그것과 다른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어를 통해 역사를 추론하던 당시의 학풍과 연관된 풀이일 것입니다.

태서에서는 그리스, 바빌론, 아라비아를 거쳐 로마에 와서야 한밤중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는 《태서사물기원》에서 가져온 지식일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은 천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흔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유서에서는 거의 누락되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만물사물기원역사》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 그리고 서양에서의 변화 등을 통해 현재의 시간 계산법이 나타나기까지를 다룰 필요가 있으니, 그 설명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시간 계산법을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한 시간 계산법이란 시헌력 이전의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헌력 이전에는 하루를 열둘로 나눈 1시(時)의 구성이 이후와는 달랐습니다. 1시를 둘로 나누었는데, 앞을 초, 뒤를 정이라 했습니다.

앞에는 초초각, 초일각, 초이각, 초삼각, 초사각을 두고, 뒤에는 정초각, 정일각, 정이각, 정삼각, 정사각을 두었는데, 초초각과 정초각은 나머지 8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였습니다. 시헌력 이후에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12시로 하되, 1시는 균등한 8각으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즉 하루는 모두 96각이 됩니다.

태서에서 현재와 같은 시간 계산법이 통용된 것은 포에니 전쟁 이후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유태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거론한 뒤에 로마의 시간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현재'의 시간 계산법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니, 독자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문의 마지막 항목인 '새벽과 황혼에 울리는 큰 종'입니다. 종을 울려 시간을 알렸기 때문에, 이 항목이 1장 천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종이 있었을 법도 하지만, 여기서 다룬 것은 대부분 한국의 사례입니다. 한국의 사례 부분은 《증보문헌비고》의 '신혼대종'을 간추린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듯한 오류도 보입니다. '세조 3년'을 '세종 2년'으로 잘못 옮긴 것인데, 그 결과로 이어지는 '8년'과 '14년'이 세종대의 일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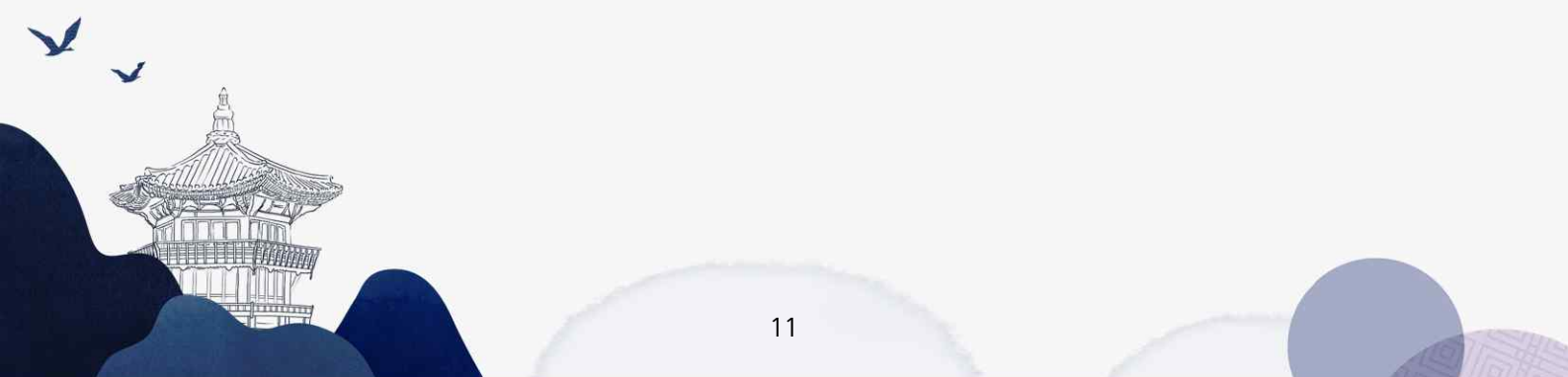
마지막에는 일본의 사례가 나타나 있는데, 내용상 이 항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올리는 종을 말한 것이니, 시간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문'에 포함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종이 여기에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태서사물기원》에는 이와 유사한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리에 실린 '지동설' 항목입니다. 《태서사물기원》에서는 '천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지리'로 옮겨졌습니다. '서양 사물'에 대한 서술은 그대로이니, 장지연이 장을 바꾼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양의 사례를 다룬 뒷부분을 봅시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설명하고 케플러가 궤도 및 지구의 모양을 해명한 일을 거론했습니다. 여기서 '지(地)' 즉 땅은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말한 것인 셈입니다. 장지연은 그 앞에 동양에서의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한 견해'를 배치했는데, 이때의 '지(地)'는 하늘과 대비되는 땅입니다.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말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땅 자체가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움직인다는 견해들을 찾아서 함께 배치한 것은 나름의 논리와 발상을 담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항목은 그에 해당하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홍수'와 '지구일주 항해'입니다. 분량이 많지 않고 서로 약간의 관련성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수에서는 요임금 때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동서양의 대표적인 홍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임금 때의 홍수에 대해서는 호인의 풀이를 제시했습니다. 홍수란 일반적으로 많은 비가 와서 생기지만, 요임금 때의 홍수는 물이 돌아갈 곳을 얻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은 거스른다는 뜻이니, 여기서 '역수'란 물이 일반적인 방향과는 달리 흐른다는 말인 셈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생기는 일반적인 홍수와는 다른 면이 있으니, 두 가지 홍수 이야기는 유사성을 지닌 것이기도 합니다.

지구일주 항해에서는 널리 알려진 마젤란의 세계일주 항해 앞에, 하나라 우임금의 항해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우임금은 이 항해를 통해 《산해경》을 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해경》은 우임금 또는 백익이 썼으며 전한 말기의 유희가 교정했다고 하는데, 중국 고대 지리서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천문과 지리에 포함된 몇 가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화적인 지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이 함께 배치된 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바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학과 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 문학과 서적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천문과 지리에 포함된 몇 가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학과 서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다룰 내용인 문학과 서적에서, 이때의 문학은 Literature라기보다는 ‘문자와 문장’까지 포함하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유서에서는 ‘문장’을 별개의 장으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고, 《지봉유설》처럼 여기에 너무 많은 분량을 배치함으로써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근대 유서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 문사의 목차입니다. ‘문학과 서적’에 해당하는 사물은 주로 제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장 전체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므로 특징적이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몇 가지 뽑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7개 즉 서계와 문자, 육경, 시가, 소설, 인쇄술(2) 활판, 서적관, 장서루입니다.

이하에서 함께 읽어볼 부분은 아닙니다만, 목차 가운데 두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먼저 조칙에서부터 만장까지 여러 개념들을 나열한 항목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한문의 문장 종류, 특히 한문 산문의 하위 장르에 해당하는 일종의 문체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항목에서는 비교의 관점을 드러내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일방적인 지식의 제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문 산문의 문체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전필인서’는 어떤 사물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전기 붓으로 책이나 글을 찍어낸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전기로 구동되는 타자기를 말하는 것으로도 짐작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태서사물기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서계와 문자’인데, 문자의 역사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비교적 긴 항목이지만, 먼저 전체를 읽어보고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계(書契)와 문자(1)

옛날에는 아직 문자가 없어서 새끼줄로 매듭을 지어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복희씨가 처음으로 서계(書契)를 만들었으니, 이는 나무에 글자를 새긴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200년 전】 대개 글자의 쓰임새는 생각을 대신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의 눈앞에 두어서 한 번 보면 그 의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뜻을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림이다.

그런 까닭에 태곳적에는 그림으로 문자를 삼아서 생각을 통하게 하였다.

그 후에 여기에서 점차 진보하여 그림을 변형하여 상형문자가 되었고,

다시 진보하여 자음과 모음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무렵에 사황씨(史皇氏)의 형제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천축국의 산스크리트 문자를 만들었다.

한 사람은 가로국(伽廬國)의 문자를 만들었는데, 왼쪽으로 써 나가는 문자였다.

또 한 사람이 곧 창힐(蒼頡)이니, 중국의 한자를 만들었다.

신라의 설총은 처음으로 이두를 만들어서 공사의 문서에 두루 사용하게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260년 전】우리 조선의 세종께서는 자모 28자로 국문을 처음으로 만드셨다.

서계(書契)와 문자(2)

일본에서는 오진 천황[應神天皇] 때 백제의 박사 왕인(王仁)이 건너가서

《논어》와 《천자문》으로 황자(皇子)를 가르쳤다. 이것이 일본에서의 문자의 시초이다.

【지금으로부터 1625년 전】 쇼무 천황[聖武天皇] 때

기비노 마키비(吉備眞備)가 당나라의 음운을 배워서 가타카나[片假名] 45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태서에서는 아담의 아들 셋[Seth, 塞]이 처음으로 상형문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기원전 2122년 무렵에 이집트 왕 메네스[Menes, 美尼斯]의 아들

아토디스[Athothis, 亞多德斯]가 만든 것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로마자는 기원전 1493년에 페니키아의 왕자 카드모스[Kadmos, 加多馬斯]가

그리스에 이르러 당시의 문자를 처음 전하였는데,

이후로 여러 차례의 개량을 거쳐서 마침내 구미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게 되었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영국 26자, 프랑스 23자, 스페인 27자, 그리스 24자, 사격납와니아(斯格拉窩尼亞) 27자,

독일[德意志] 27자, 이탈리아 20자, 러시아 41자, 라틴 23자, 헤브라이 22자, 산스크리트 50자,

페르시아 32자, 터키 33자, 아라비아 28자.



서두에서는 초기의 문자 형태인 결승문자와 서계문자를 언급하고, 이어서 문자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왜 문자를 만들게 되었는지 말하고서, 문자가 그림문자에서 상형문자로, 다시 표음문자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문자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며 문자의 변화를 일종의 발전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 셈인데,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이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견해를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라는 점만 여기서 지적해 두기로 합니다.

한자를 만들었다는 창힐 즉 사항씨와 함께 그 형제들을 거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방식도 아닙니다. 창힐의 형으로 짐작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들었다는 문자는 산스크리트 문자와 가로국 문자인데, 이 가운데 가로국 문자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원나라 때의 문헌에서는 서역에서 만든 문자이며, 뒤에 몽골 문자 등으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보입니다. 사항씨의 삼형제를 말한 부분은 조선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허황하다고 여겼기 때문은 아니며, 한자를 만든 창힐이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한국의 사례로는 설총의 이두 사용과 세종의 '국문'창제를 말했는데, 설총의 일에 '지금으로부터의 몇 년 전'을 붙인 것은 조금 특이합니다. 일본의 사례 가운데 일부는 지난 강의 말미에서 잠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가타카나의 기원에 대한 서술 부분입니다.

태서 즉 서양의 문자로는 상형문자를 말하고, 이어서 로마자 즉 알파벳을 말했습니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알파벳의 수가 다르다고 하고서 그 내역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태서사물기원》에도 보입니다.

다음은 '육경'항목입니다. 여섯 개의 경전이라는 뜻인데, 중국에서 형성되어 동아시아에서 유통된 여섯 개의 중요한 유가 경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학이 없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육경'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각기 '몇 대 복음서'와 같은 방식으로 주요 경전을 지칭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그와 같은 유사성까지 고려하면서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육경에 속하는 경전 각각의 글자 수를 제시한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표시한 바와 같이, 육경 이외에 사서(四書)에 속하는 문헌에도 글자 수를 밝혀 두었습니다. 물론 장지연이 직접 경전의 글자 수를 헤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학감주》나 《지봉유설》등의 문헌에도 이미 이러한 수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제시한 글자 수가 《지봉유설》의 것과 다르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다음은 '시가' 항목입니다. '서정-서사-희곡'이라는 문학 갈래의 삼분법이 등장하는 항목이어서 일찍부터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 출신이 아닌 장지연이 이러한 지식을 다루었다는 점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태서사물기원》에서 유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학의 삼분법은 니시무라의 책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부예의 책에 등장하고 그 번역본인 《태서사물기원》에 나타납니다.

먼저 《태서사물기원》에 실린 내용의 서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시의 시원(始原)은 그리스가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스에 시가 나타난 것은 일찍이 시선 Homeros 이전에 있었던 Linus의 노래, Ialemus의 노래, Hylas의 노래가 가장 오래된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 도리가 없다.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는 Homeros의『iliad』및『odysseia』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시에는 서정시, 서사시, 희곡시의 세 종류가 있는데, 아래에 하나하나 기술한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태서사물기원》의 '서양 시'에 관한 서술이 여러 지식들의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서두에는 사언시, 오언시, 칠언시 즉 한시 시체의 기원을 내놓았는데, 세부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글자 수를 기준으로 기원을 이야기한 방식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시가인 맥수가, 공후인, 황조가를 거론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서양의 시가에 대해 서술합니다. 《태서사물기원》의 서술을 다소 간추렸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리노스, 이알레모스, 힐라스와 같은 이름을 장지연이 알았을지는 확실하기 어렵지만, 큰 오류 없이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사례로 《만엽집》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은 한국의 사례 아래로 옮겨두었다면 더 자연스러웠을 듯합니다.



마지막에는 서정, 서사, 희곡의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아래에 이들 '세 종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물론 《태서사물기원》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에 대한 추가 설명 부분에서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을 리 없었던 장지연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설' 항목입니다. 오른쪽은 《태서사물기원》의 '소설' 항목인데,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이 내용을 활용한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동양의 사물을 함께 다루었기에 중국의 '패관소설'을 앞에 배치했는데, 《태서사물기원》의 '소설 가운데 오래된 것'이라는 표현을 '소설의 원류(源流)'로 바꾼 것은 약간의 의미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에서 '찰'을 써서 오자를 낸 것은, 단순한 오자일 수도 있고 네로 황제에 대해 잘 몰라서 나타나게 된 결과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우아의 심판관이라는 별명을 지닌 페트로니우스 아비타의 작품을 소설의 기원으로 거론한 것은, 《태서사물기원》에서 가져온 것이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사티리콘>은 악한소설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데, 이러한 지식이 그리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인쇄술(2) 활판' 항목입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인쇄술을 세 항목에 나누어 서술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인 것입니다.

먼저 조선의 금속활자에 대해 서술했는데, 한번 읽어둘 만합니다. 물론 활자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은 이보다 자세히 서술한 문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일부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역주본의 주석에서 밝혀두었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일본의 활자에 대한 서술을 배치했습니다. 강의 서두에 간행본의 오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덜란드, 독일의 사례로서 목활자와 금속활자를 서술했습니다. 라우렌스와 구텐베르크의 발명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자로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적관'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풀이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책을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로 이해한 듯합니다.



《태서사물기원》에서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사례를 서술했는데,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그 앞에 '동양의 서적관'에 해당하는 중국 및 고려의 서적관에 대한 기록을 배치하였습니다. 각각 어떤 제도 혹은 건물을 가리키는지 따로 살펴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피시스트라투스'의 한자 표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다룰 항목에도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장서루'항목입니다. 앞에서 살핀 '서적관'과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치 않으며, 《태서사물기원》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한자 표기는 다르지만 '피시스트라투스'가 만든 시설이 함께 거론되고 있으니, 실제로는 같은 '사물'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서루 항목에서는 먼저 당대에 운영되던 주요 도서관의 규모와 예산 등을 먼저 언급했는데, 당시로서는 최신 정보를 가져온 듯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유래한 지식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적인 관심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장서루에 해당하는 사물이 동양에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서적관'과 실질적으로는 중복되기 때문인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학과 서적에 포함되는 몇 가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서양의 사례를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본다면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과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 과학과 교육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문학과 서적에 포함되는 몇 가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과학과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교육 부분은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초기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목받았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5장 과학과 제6장 교육의 목차입니다. 제22장 기계나 제11장 군사의 일부,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더 찾아볼 수 있지만, 이들은 주로 과학기술의 응용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학'으로 직접 분류된 항목에 한정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6장 교육에서는 성균관이나 석전처럼 '동양'에만 한정된 사물이 있는가 하면, 사회학, 철학이나 대학교처럼 '서양'에 한정된 사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서양을 함께 다루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5장의 경우에는 제목인 과학에도 짙은 서술이 붙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른 항목들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8개 항목입니다. 과학, 불, 산술, 기하학, 토지 측량술, 사범학교, 맹인학교, 체조입니다.

먼저 제5장의 제목인 '과학'에 붙은 설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원문을 제시했습니다만, 다른 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식입니다.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설은 근대 태서의 학자가 발명한 것인데, 실상은 동양 성현의 격물학 및 육예의 술(術)에 지나지 않는다. 태서의 사람들이 근대에 새롭게 발명하여 교육계의 교육 과정으로 만든 까닭에,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격물학은 격물치지의 학문이니 곧 전통적인 학문 일반을 뜻하는 말이며, 육예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여섯 가지 기초적인 교육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학문 또는 학문 수련의 방법을 말한 셈입니다.



태서 즉 서양에서 새롭게 발명한 것은 격물학이나 육예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교육계의 교육 과정'으로 만든 행위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내용적 요소는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고 한 셈인데, 장지연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견해 가운데 하나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제5장의 네 번째 항목인 '불'입니다. 불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신화를 통해 동서양의 불에 대한 이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동양의 사례로는 수인씨의 일을 먼저 거론하고, 이어서 《주례》에 나타나는 개화(改火)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주례》에서는 계절에 따라 불을 일으킬 때 쓰는 나무의 종류가 달라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불을 바꾼다는 뜻의 '개화'라고 일컬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사용되는 나무의 종류는 오행의 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행설이 널리 퍼져 있던 당시에는 의심할 수 없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행설의 관점에서 보면 여름에 사용되는 나무는 왜나무나 박달나무일 수 없습니다. 왜나무와 박달나무는 검은 빛을 지닌 나무이므로, 이 부분은 겨울로 수정해야 합니다.

한편 서양의 불로는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가져왔습니다. 불에 관한 다양한 발명이나 발견을 거론하지 않고 신화를 가져온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항목 내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산술 항목입니다. 계산 혹은 산수 정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례를 대비시켜 놓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동양의 사례로는 황제 때의 예수, 《주역》에서의 서술, 주공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구장산술, 그리고 당나라의 일행과 송나라의 소강절의 일을 거론했습니다. 일행은 대연력을 완성했으며, 소강절은 《황극경세서》를 써서 수리철학을 세상에 내놓은 인물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역주본의 주석 그리고 동양 수학 관련 문헌을 더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편 서양의 사례로는 탈레스에 대해 언급하고, 피타고라스가 만든 구구 곱셈법 즉 구구단 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하학 항목입니다. 원본에 그림이 포함된 특징이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역주본에서도 왼쪽과 같이 그림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탈레스의 일화를 먼저 거론하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뒤에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와 유사한 풀이법은 동양의 전통 수학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는데, 장지연이 정확히 몰랐기 때문인지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지 측량술 항목입니다. 토지 측량의 기술이나 도구와 함께 토지 측량술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는 주공이 사용했다는 토구를 언급합니다만, 이보다 앞선 시점인 하나라 사람 수해가 땅의 길이를 잴 일화를 더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 측량의 면모가 드러났기 때문일 것인데, 실상은 신화적인 설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해는 하나라 우임금의 신하로 잘 걷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하는데, 5억 보 넘게 걸어서 땅의 길이를 잰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산해경》에 실린 것이라 했는데, 현재 전하는 《산해경》의 서술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산해경》에서는 수해가 산가지를 오른손에 쥐었다고 했고, 결과로 내놓은 걸음 수도 조금 달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늘 밭의 경계를 새로 만들어야만 했던 이유에서 토지 측량술이 발달하게 된 원인을 찾았습니다. 토지 측량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은 것은 이미 ‘기원’을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영역에 속하는 사범학교 항목입니다. 사범학교는 서양의 교육제도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역사 기록으로부터 동양에서의 기원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신라의 교육제도에서 사범학교의 기원을 찾았고, 고려에서 지방 및 중앙의 교육을 위해 사범을 양성한 사례들을 발굴했습니다. 태황제 즉 고종 때의 육영공원과 한성사범학교를 마지막으로 거론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범학교가 나타나는 과정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언급한 것은 한나라 문제 때 촉군의 태수를 지낸 문옹의 일화인데, 이는 한국의 사례보다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이처럼 시간 순서에 어긋나는 배열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데, 완전한 사범 '학교'가 되지 못한 탓에, 이처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일의 프랑케가 설립한 사범학교를 언급했는데, '사범'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범학교'만 다루었다면 아마 이 일을 제일 먼저 언급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맹인학교 항목입니다. 맹인학교는 서양의 사례만을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인데, 장지연은 동양의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해 노력한 듯합니다.

맹인학교의 기원으로는 프랑스의 아위가 세운 학교를 거론했습니다. 아위를 도와 '오목한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파라디스입니다. 파라디스는 귀족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려서 시력을 잃었는데, 뛰어난 기억력과 청력을 갖추었기에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위는 파라디스의 도움으로 불룩한 모양의 초기 점자를 만들었다고 하니, 여기서 '오목한 글자'라고 한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동양의 사례를 '학교'라고 일컫기는 어려운데, 그 때문인지 장지연은 "살피건대"라는 말을 내세워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눈이 먼 사람으로 하여금 음악을 학습하게 하여 악공으로 삼았는데, 이를 '고사(瞽師)'라고 일컬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의 일에도 종사하였다."

다음은 '체조'항목입니다. 오른쪽은 《태서사물기원》의 제11장 위생에 포함된 체조 항목의 원문입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서두 부분은 《태서사물기원》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에서 유래했고 원어가 '점나사적'이었다는 등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살피건대"를 앞세워 《태서사물기원》에는 없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스파르타의 신체검사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이나 잡지 등의 자료에서 가져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상으로 과학과 교육에 포함되는 몇 가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신화까지 거론하면서 동서양을 함께 다루려고 한 흔적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시 뒤로 미루었지만, 동양 또는 서양만 다룬 항목도 적지 않은데, 이들 항목도 당시의 지식수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강의 이후에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치와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 정치와 경제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과학과 교육에 포함되는 몇 가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이 주제에 해당하는 장을 찾아본다면 제10장 정치, 제15장 상업, 제16장 농사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적어도 이 책이 간행되던 시점에서는 이들이 오늘날처럼 확고한 경계를 지닌 독자적인 분야로 확립되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10장 정치, 제15장 상업, 제16장 농사의 목차입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에 해당하는 사물을 다룬 부분이지만, 그 구성 요소들이 오늘날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10장 정치에는 서두에 조세, 호포, 환곡을 수록했는데, 모두 세금 걷는 것과 관련된 제도들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치'는 부세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을 앞에 내놓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이 구성은 《태서사물기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태서사물기원》에서는 장의 제목을 정치법률이라고 붙였으며, 조세, 증권인지, 상준, 국채와 함께 형벌을 수록했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형벌'부분을 아예 삭제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제15장 상업과 제16장 농사에서는 상업과 무역, 그리고 농업 생산과 관련된 항목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들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다만 살펴볼 만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강의 이후에 하나씩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함께 살펴볼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9개 항목입니다. 조세, 국기, 증권인지, 투표법, 국채, 은행, 전당포, 경작, 화륜쟁기입니다.

다음은 정치의 첫 번째 항목인 조세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원문은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1)



헌원씨(軒轅氏)가 처음으로 정전(井田)을 구획하고, 공전(公田)과 십분의 일의 세(稅)를 정하였다.

이것이 조세의 시초이다.

진(秦)나라 효공(孝公) 12년에 천맥(阡陌)을 열고 처음으로 전부(田賦)를 정하였다.

이것이 후세 전부(田賦)의 시초이다.【지금으로부터 2250년 전 무렵】

진(晉)나라 성제(成帝) 함화(咸和) 초년에

처음으로 백성들의 농지를 측량하여, 1무 당 3승(升)의 쌀을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것이 전세미(田稅米)의 시초이다.【지금으로부터 1580년 전】

한나라 고제 4년에 처음으로 산부(算賦)—15세 이상

56세까지의 사람이 120문을 세금으로 내었다—를 시행하였다.

효소제(孝昭帝) 4년에 구부(口賦)—7세로부터 14세까지의 사람이

23문의 구전(口錢)을 내었다—를 징수하였다.【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

이것이 인구세(人口稅)의 시초이다.

—살피건대, 역대의 조세와 부세는 복잡하여 여기에 전부 다 기록하지는 못한다.—

조세 (2)

우리나라에서는 기자가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서

처음으로 정전을 구획하여 조세와 부세의 제도를 정하였다.

신라 성덕왕 21년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였다.【지금으로부터 1186년 전】

고구려에서는 세(稅)로 베 5필과 곡식 5석을 내었다.

유인(遊人)은 3년에 한 번 세금을 내는데, 10인이 함께 세포(細布) 1필을 내었다.

조(租)는 호(戶)마다 1석을 내는데, 그 아래는 7두(斗)였으며, 가장 아래는 5두였다.

백제에서는 베, 비단, 삼베 및 쌀로 부세를 받았는데,

그 해의 풍흉을 헤아려 차등을 두어서 거둬들였다.

일본에서는 고토쿠 천황[孝德天皇]이 처음으로 호적 및 전무법(田畝法)을 만들었다.

또 조용조(租庸調)의 법 및 이장(里長)을 정하였다.【지금으로부터 1265년 전】

또 문무 천황[文武天皇] 10년에 처음으로 전세법(田稅法)을 정하였다.【지금으로부터 1203년 전】

서양에서는 로마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중국의 역대 조세 제도를 정리하려 했는데, 이 일은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었다고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정전제를 먼저 말하고, 이어서 전세(田稅)와 인구세의 기원을 각기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로는 기자, 신라 성덕왕, 고구려, 백제 때의 일을 말했고, 일본의 사례로는 고토쿠 천황과 몬무 천황 때의 일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짝막하게 서양에 대해 “로마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였다”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태서사물기원》의 서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서사물기원》에서는 세금을 법제화하여 정비한 것이 로마 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기 항목입니다. 《태서사물기원》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그 때문인지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사례만을 수록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는 전통적인 표상을 먼저 말하고, 국기가 사용된 기원을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세에는 만국이 교통하니, 상선과 전함들은 국기를 이용하여 각기 그 나라의 휘장을 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태극을 존중하고 숭상하였다. 그래서 관아의 문에 모두 태극을 그렸다. 태황제 13년에 일본과 수호조규를 맺은 뒤로는 나라의 휘장을 태극장으로 정하였다. 태황제 22년에 북미합중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사절을 보낼 때 태극 휘장을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세계에서 두루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고메이 천황 6년에 처음으로 나라의 휘장인 일장기를 정하여 선박마다 세워두게 하였다.”

다음은 증권, 인지 항목입니다. 중국의 사례를 먼저 말하고, 서양의 사례인 스페인 펠리페 2세 때의 인지 발행 사례를 뒤에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례는 ‘인지’라고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인지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이해하여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사례는 《문헌통고》에서 전거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송나라 개보 2년에 인계전을 걷었다는 말이 나타납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3년”은 오기일 수도 있고, 연대를 설정할 때 즉위년을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서 나타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관아에 인계전을 납부하고, 관아에서는 매매거래의 쌍방에게 일종의 공증 증서인 인계를 교부했다고 합니다. 장지연은 그 성격이 서양의 인지와 가깝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투표법 항목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패각추방제’와 함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다루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서술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제2대 대통령을 뽑을 때 처음 투표를 시행했는데, 1796년 12월에 투표하고 이듬해인 1797년에 대통령 취임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존 애덤스의 한자 표기에는 특이한 면이 있는데, 이 표기는 성을 앞에 두는 방식 즉 '애덤스 존'으로 읽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채 항목입니다. '국채'는 당시 한국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던 '사물'입니다. 따라서 서양의 국채 액수나 국채의 역사에 대한 정보가 적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례로 거론된 피채대는, 국왕이 빚 독촉을 피해 달아난 누대를 뜻합니다. 동주의 마지막 왕인 난왕은 부자들에게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경비를 빌리는데, 전쟁에서 지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피채대로 달아나게 됩니다. 당나라의 사례는 난왕의 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공적인 방식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채가 사채와는 다르니, 과정이 비슷하다고 해도 당나라의 경우에만 국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로는 고려 때의 차전령과 을미년에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온 일을 말했고, 일본의 사례로는 해관세를 담보로 외채를 얻어 철도를 부설한 사례를 거론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시간적으로 멀지 않은 이 사건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국채 항목은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현실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은행 항목입니다. 중국 주나라의 구부환법과 메이지 5년에 설립된 일본의 국립은행을 먼저 거론하였고, 유럽 은행의 기원을 뒤에 배치했습니다. 유럽의 사례는 《태서사물기원》의 은행 항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자료 혹은 정보에서 유래한 지식도 함께 포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808년이라는 견해가 《태서사물기원》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영국의 은행에 대한 서술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영국을 주어로 내세웠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앙은행의 기원을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더 앞선 시기에 세워졌으니 이런 이유도 아닐 것입니다. 신문 또는 잡지로 추정되는 제삼의 자료가 그 유래일 듯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당포 항목입니다. 중국의 질제와 서양의 전당포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둘 모두 후대의 어휘를 통해 기원에 관한 지식을 재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례》에서 언급된 질제는 관에서 발급하는 율통 어음인데, 청나라에서 전당포를 '질옥'이라고 부르는 데서 그것이 '전당'의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서양의 롬바르드 사람이 전당포를 처음 열었다는 사실은 '롬바르드'가 전당포와 관련된 어휘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영어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독일이나 러시아의 어휘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에 포함된 경작 항목입니다. 중국의 사례들을 먼저 들고, 이어서 서양과 한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기구를 처음 만들고 경작을 가르친 신농씨의 일이나 '땅을 경작하는 자'로 일컬어졌다는 카인의 일은 신화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에 언급된 신라 지증왕의 우경, 즉 소를 이용한 경작이라는 사건이 오히려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화륜쟁기 및 수차 항목입니다. '화륜쟁기'란 증기를 활용한 농기구일 것인데, 1855년 미국에서 만든 각종 농기구들을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시기나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당시의 신문 혹은 잡지에서 유래한 지식으로 짐작됩니다.

일본, 중국, 한국에서 고안되거나 제작된 수차는 사실 '화륜쟁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의 힘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비록 부록의 형태를 취했지만, 화륜쟁기와 수차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만국사물기원역사》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서로서의 특징, 그리고 네덜란드로부터 일본, 중국을 거치면서 이뤄진 지식 교류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전통적 지식인이 지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분투했던 면모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당대의 상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양의 지명과 인명을 착각한 서술입니다. 바온과 피스토이아는 도시 이름이지만,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류는 《태서사물기원》에서 유래한 것인데, 번역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오류의 위험성이 항상 주위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장영실'의 이름을 '장영'으로 잘못 이해한 사례입니다. 장영실은 한국 과학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인물이지만, 불과 100여 년 전의 과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장지연은 이 책에서 세 차례 장영실을 거론하지만, 모두 장영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큼 당시에는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류의 사례는 단순한 흥밋거리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만국사물기원역사》와 그 배경에 놓인 당대 지식인의 지적 분투가,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뤄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본 부분이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읽어가면서, 이러한 분투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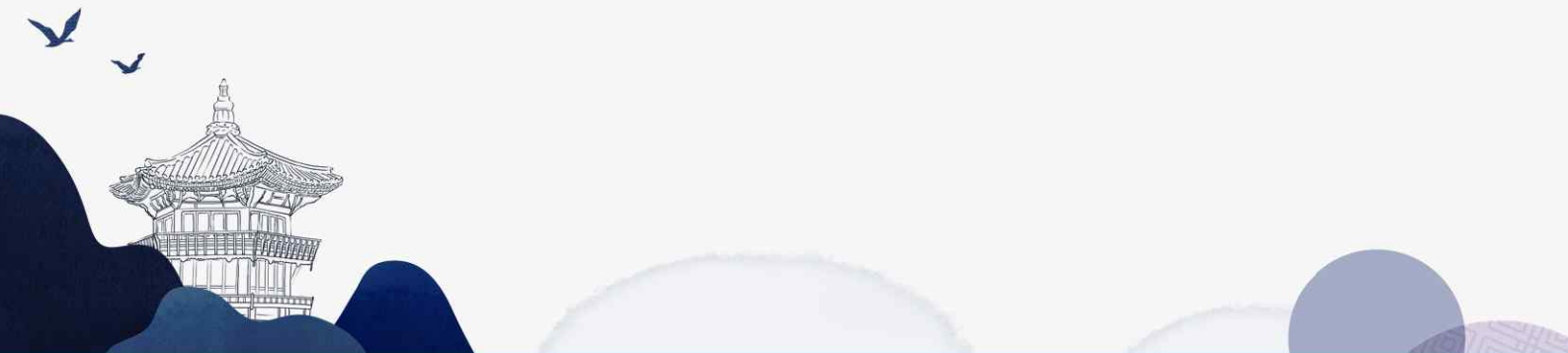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이상으로 《만국사물기원역사》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0

Read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10-1

Composi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Hello, students. I'm Hwang Jae-moon,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o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is is the 10th lecture and I would like to go on with the theme of 'Read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This is a follow-up lecture to the last one, 'Understand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this lecture, we will take a look at the contents of Jang Jiyeon's Man'guk Samul Giwon Yeoksa. Since we can't read the entire book, let's first look at the composition of the chapters and items, and then pick some of them to read together. Through this, we'll try to find a way of reading it that fits today's perspective while considering the nature of 'yuseo (classified reference book)' as traditional literature.

In the last lecture, w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ok, the process of writing it, and its significance in academic history. In this lecture, we're going to read the actual content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although only a small part of it, with what we learned last time as the basis of our reading. Most of the book will be left unseen today, but I hope you will be able to read it on your own based on today's lecture. The style used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a kind of Korean-Chinese mixed writing. In general, Korean-Chinese mixed sentences are easier to understand than Literary Chinese, but in this book, proper nouns representing Western objects, people, and events are transliterated into Chinese characters, so it is not easy to read the original text. So, in this lecture, I'm going to use the translated and annotated edition that I published in 2014.

The original edi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published in 1909 is about 250 pages, but this edition has more than 700 pages. It's quite thick,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



The volume naturally increased because the proper nouns transliterated in Chinese characters were rewritten in modern style, the source quoted text or errors were revealed, and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item was presented. There are still many insufficient parts, but for now, it would be relatively efficient to approach Man'guk Samul Giwon Yeoksa focusing on what is reviewed in this edition.

However, I have to tell you in advance that this translation was published before Taixi Shiwu Qiyuan (Origins of Things in the Great West) was brought up in academia. As you can guess from the last lecture, a more accurate interpretation is possible by referring to Taixi Shiwu Qiyuan. This translated and annotated edition was completed through comparing Saigoku Jibutsu Kigen (the Origins of Things of Western Country) by Nishimura Shigeki and the manuscript written by Jang Jiyeon, but in this lecture, we will also look at the related phrases from Taixi Shiwu Qiyuan if necessary.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composi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the last lecture, I showed you the summary of the entire composition as indicated in the original text, but in this lecture, I would like to start with the table of contents of the translated and annotated edition. It is interpreted in today's vocabulary so that you can read it more easily,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Literary Chinese of the original text, you can refer to the data from the previous lecture or the original text added in the appendix at the back of the translated edition. For your information, the original text contained in the translated edition is a corrected version that went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manuscript.

First, this is the table of contents from Chapter 1 to Chapter 7. Among them, chapters 1, 2, 4, 5, and 6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this lecture. For each table of contents, please pause the video for a moment and take a look.

Next, this is the table of contents from Chapter 8 to Chapter 15.



This is the table of contents from Chapter 16 to Chapter 22. The last entry of the Chapter 22 Machine is Various Devices, and as I told you in the last lecture, the original text is 'Device.' There's an example of an object or event mentioned in another entry description being mentioned again here. And it has different transliteration in Chinese characters. Chapter 22 is not covered in this lecture, but readers who are interested in the acceptance of knowledge related to Western objects, especially science and technology, must take a look at this chapter.

Now, this is the table of contents from Chapter 23 to Chapter 28, and the chapters of the original text.

The whole structure from Chapter 1 to Chapter 28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general sequence of yuseo, 'cheon (the sky), ji (the earth), in (the human), sa (the matter), and mul (the thing).' Only the proportion of the matter and the thing is considerably larger because, at this point, there were a lot more matters and things to include, which traditional yuseo had not needed to contain. As I told you last time, this structure is based on the overall framework of Taixi Shiwu Qiyuan, but the details are not applied as they are. Let's look at the original text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a bit more. I have told you that both the manuscript submitted for censorship and the actual published book are currently existent, and I would like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picture you see is the first part of the body. On the left is the manuscript, and on the right is the published book. You can see that both change rows in the middle. It divides the contents into entries, and again distinguishes the part where it describes different region or event by changing rows. This distinction may have been useful to the reader as it deals with 'the things of the world.'

I pointed out that there are traces of censorship in the manuscript, but there are also traces of correction that do not seem to have much to do with censorship. In the manuscript, traces are left when you make revisions such as adding information to already written draft, while in the printed publication the description could be modified without leaving a trace.



Let's look at one example. On the left is the entry 'Jeong(井)' or Well in the manuscript, and it has information concerning Japan at the end. And below that, there's an annotation that says, "This should go into the Lotus Shaped Stones." In the publication on the right, you can see that the annotation is reflected in the actual book. In other words, the last part of the entry Well in the manuscript was transferred to the entry Lotus Shaped Stones in the publication. Of course, this phrase is actually omitted from the Well section of the publication.

There are parts that only a published book has though they are rare. This is the description of Japanese type in the entry Type. The manuscript doesn't have this part. It can be assumed that it was supplemented after the first draft, bu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pplementation is done by censorship, as in the case of the Mirror I mentioned in the last lecture, or otherwise.

There are relatively many typos in this passage. Also, the style of writing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rest, especially the fairly colloquial expressions like "Gadeung Cheongjeong-iga (Kato Kiyomasa 加藤清正)" However, there is no awkwardness as in the 'Mirror' section that has the entire Three Sacred Treasures of Japan, but rather, it seems to have made up for the shortfall by adding content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Typeboard' section.

To add to my imagination, someone might have given new information not in writing or in official documents, but in words, and it might have been reflected in a hurry while waiting for the censorship to be processed.

So far, we've introduced a translated and annotated edi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looked at some problems of the original edition. This is part of the preparation to effectively read the text. Next time, let's look at the text of the Astronomy and Geography sections together.



10-2 Astronomy and Geography

Last time, I introduced a translated and annotated edi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looked at some problems of the original edition. Now, let's take a look at the text of Astronomy and Geography chapters together. Since we can't read all 28 chapters, we'll look at some parts that can show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book and include the points that are noteworthy in reading.

Earlier, I told you that the general arrangement of items, or structure of yuseo, can be summarized as 'the sky, the earth, the human, the matter, and the thing,' and among them, those that always appear in the beginning is the sky and the earth. In terms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y are Astronomy and Geography.

This is the table of contents of Chapter 1 Astronomy and Chapter 2 Geography. The items included in the two chapters are shown. It would be nice to look at the whole chapters together, but that's not possible because of time limit. The items we're going to look at together are marked in yellow. In Chapter 1, we will look at Heavenly God, Sun and Moon, Weather Forecast, Day and Night, Time, Big Bell Ringing at Dawn and Dusk, and in Chapter 2, we will look at Copernican Theory, Flood, and Voyage Around the Earth.

First, let's read the second entry in Astronomy, 'Heavenly God.' It describes the god in the sky or cases where the sky itself is believed as a god. It is a difficult item to find in both the pre-modern yuseo and Taixi Shiwu Qiyuan. You can say that Jang Jiyeon's own cultural interpretation is reflected here.





On the right is the original text, and on the left are the translation and annotation. First, it quotes the understanding of the heavenly gods of China and East Asia from *Wujing Tongyi* (Five Classics), then mentions the case of Heavenly Father or Heavenly Lord in the Jewish Bible, and finally, adds Goguryeo's word for the sky and the rite offered to the heavenly god. Because the three cases are different, the author changes rows. *Wujing Tongyi* is a book written by Liu Xiang of the Han Dynasty, and there is a phrase that the Haotian Emperor is also called the Heavenly Great Emperor or the Great One. Among them, the word Haotian Emperor was brought. Here, the word Five Emperors are not legendary kings, who are often called the Three Sovereigns and Five Emperors, but abstract beings who are set according to the Five Elements. The association of orientation with color is a common phenomenon in pre-modern East Asia.

The idea that Heavenly Father or Heavenly Lord is like the Emperors in Confucianism is an example of a kind of comparative perspective of culture. Of course, this way of explanation is common in literature related to *Seohak* (Western Learning). The point that in Goguryeo the sky was notated as 'Haneul' is also an example of the academic style of the time when history was inferred from language.

Next is 'Sun and Moon.' Dealing with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various stars in the sky, and meteorological phenomena in Astronomy is the general composition of *yuseo*, so it is natural to deal with the sun and the moon in Chapter 1. *Taixi Shiwu Qiyuan's* Chapter 1, *Sky*, deals with the sun and the moon, as well. However, the attitudes of the two pieces of literature are slightly different.

It starts with the case in the Eastern literature where the sun and the moon are mentioned, and the explanations are mainly in the mythical realm. From *Shuowen Jiezi* (Writings and Characters) and *Wujing Tongyi*, the author brought a widespread mythological understanding, and from *Huainanzi* (The Writings of Huainan Masters), he brought an interpretation of the time based on the mythical understanding. From the *Book of Tang*, he brought the customs of Silla recorded in the Chinese history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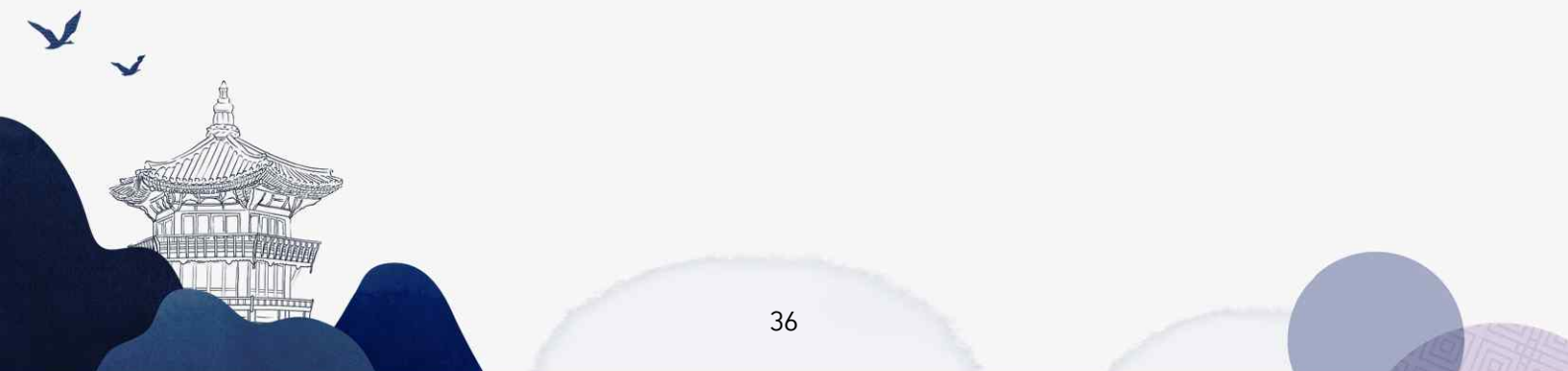


In the part that Western cases are discussed, he first describes the mythical idea of understanding the sun as a god and the moon as a goddess and goes on to explain the gradual change of ideas. He says that Thales criticized the previous practice of considering the sun and the moon as gods and explained, "The sun is a star, so it is a hot fire made of transformed steam. The moon is an object that cannot shine on its own, and it emits light by receiving sunlight." And he adds to this the knowledge of natural science that Galileo of Italy gained from observations and experiments.

In this entry, you can find the phrase ' ~ years before now' in many places. 'Now' here means 1909, when Man'guk Samul Giwon Yeoksa was published. Although it's not accurate, identifying time distances like this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There was no such indication in Heavenly God discussed earlier, it may be because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time when the 'heavenly god' appeared in human history.

Next is Weather Forecast. The term at the time was 'Heaven Forecast.' On the right is Taixi Shiwu Qiyuan, and on the left is the original and translated text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content is simple. "A British admiral Robert FitzRoy was accustomed to sailing from 1805 and was interested in the weather, and invented the first system of weather forecasting. It has helpe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sail in the sea." It is highly likely that Jang Jiyeon referred to the description of Taixi Shiwu Qiyuan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if we assume that, he simplified the description of Taixi Shiwu Qiyuan and changed 'Yeongguk (the U.K.)' to 'Yeonggiliguk (England).' At that time, the latter seemed to have been the more familiar expression to readers than the former.

Next is Day and Night. The question of understanding the day and night leads to the question of 'what can be the criteria to decide the beginning of the day?'





It talks about the common idea of the East that it was considered the day when the sun rises and night when the sun sets, and that midnight was used as the beginning of the day. Then it adds that Silla and Goguryeo used the word 'Nazo' differently for day and evening respectively. It is widely known today that 'Nazo' was the word for evening in the old language, but the story that Silla used it in a different meaning is unfamiliar. It must be an explanation in line with the academic style of the time when history was inferred through language.

It goes on to describe that in the West, the midnight was the beginning of the day only after Rome was established after Greece, Babylon, and Arabia, and this must be brought from Taixi Shiwu Qiyuan.

Next is Time. From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time is often understood to be closely related to astronomy. So, it's an entry that's rarely left out in yuseo. However,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explanation became more complicated because it was necessary to deal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nd changes in the West until the current method of time calculation appeared.

A little explanation is needed to understand the part that explains the time calculation of the East.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 advance that the time calculation method mentioned here is before the Congzhen calendar. Then, the composition of 1 si (hour), which divided the day into twelve,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gzhen calendar. It divided 1 si into two, and the front one was called cho and the rear one was called jeong.

The cho consisted of cho-cho-gak, cho-il-gak, cho-i-gak, cho-sam-gak, and cho-sa-gak, and jeong consists of jeong-cho-gak, jeong-il-gak, jeong-i-gak, jeong-sam-gak, and jeong-sa-gak, and cho-cho-gak and jeong-cho-gak were equivalent to $\frac{1}{6}$ of the remaining eight gak (quarter). After the Congzhen calendar, the calculation became different. The day is set to have 12 si, but 1 si is made up of equal eight gak. So, every single day consist of 96 gak.



The book says that in the West, it was after the Punic War that the current method of calculating time was used. It talks about the time calculation of the Egyptians, Greeks, and Jews, and then provides the time calculation of Rome. Readers would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it should be explained based on the 'current' method of time calculation.

Next is the last item in Astronomy, the 'Big Bell at Dawn and Dusk.' Because they rang the bell to announce the time, this entry was included in Chapter 1 Astronomy.

There may have been bells of the same function in other regions, but most of the cases covered here are Korean. The part that presents Korean cases is believed to have summarized the entry 'Sinhondaejong' of Jeungbo Munheon Bigo (Supplementary Reference of Documents), and there is also an error that seems to have made in the process. The phrase 'in the 3rd year of King Sejo' was mistakenly changed to 'in the 2nd year of King Sejong,' and as a result, it was as if 'the 8th year' and 'the 14th year' were also in King Sejong's reign.

At the end, there is a Japanese case, which does not fit in this entry. It is not related to time because it is a bell that rings for those who have suffered grievances and injustice. If so, i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included in 'Astronomy.' Only, it is not clear why the Japanese bell is included here. There is no similar item in Taixi Shiwu Qiyuan.

Next is the entry 'Copernican Theory' in Chapter 2, Geography. It is included in 'the Sky' in Taixi Shiwu Qiyuan and was transferred to 'Geography'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Since the description of 'Western Things' remains the same, it can be assumed that Jang Jiyeon had his own logic in changing the chapter.

First, let's look at the latter part that describes the Western case. It explains Copernicus's theory and talks about Kepler's clarification of the orbit and the shape of the Earth. Here, 'Earth,' the land, means the earth as a planet. Jang Jiyeon puts the 'view that explains the movement of the earth' in the East in front of it, and the 'earth' here is a land that contrasts with the sky. It doesn't go well with the discussion of the earth as a planet.



However, it can be evaluated as showing the author's own logic and ideas to find the views that the land itself moves horizontally or vertically and place them together. If you can fi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imes and regions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is entry could be an interesting example.

Next is Flood and Voyage Around the Earth. They are short and a little related, so let's take a look at them together.

The entry Flood presents the flood during the reign of Emperor Yao and the story of Noah's ark. They are representative flood stories of the East and the West. As for the flood during the reign of Emperor Yao, he presents interpretation of Hu Yin. It says that floods are generally caused by heavy rain, but the flood during the reign of Emperor Yao was caused because the water had nowhere to return to. 'Yeok (counter)' means going against, so 'yeoksu (countercurrent)' means that the water flows in the direction different from normal direction. The story of Noah's ark is also different from usual floods simply caused by heavy rain, so the two flood stories have similarities.

In the entry Voyage Around the World, before Magellan's widely known voyage around the world, the author placed the story of the journey of Yu the Great of the Xia Dynasty. He says Yu the Great was able to write Shanhaijing (the Classic of Mountains and Seas) through this voyage. Shanhaijing is said to have been written by Yu the Great or Boyi and revised by Liu Xin at the end of the Western Han Dynasty. It is valuable literature as a geography book of ancient China.

So far we have looked at some of the items included in Astronomy and Geography. It may seem unnatural that mythological knowledge and natural science knowledge are placed together, but their juxtaposition will lead to a lot of new thinking.

Next time, let's look at Literature and Books.





10-3 Literature and Books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some of the items included in the Astronomy and Geography chapters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about Literature and Books.

The 'Literature,' which will be covered in this session, is a traditional concept that includes 'texts and sentences' rather than its narrow definition of a written art form. In fact, in traditional yuseo (classified reference book), 'Sentence' is often an independent chapter, and there are cases where it is considered excessive by including too many items here, such as Jibongyuseol (Topical Discourses of Jibong). It's a key part of the pre-modern yuseo.

This is the table of contents of Chapter 4 Literary Work. Objects that belong to 'Literature and Books' are mainly included in Chapter 4. It would be nice to look at the entire Chapter 4, the time limit doesn't allow us, so let's pick a few distinguishing items that require additional explanations. What we will look at together are the seven yellow marked items: Writing System and Script, the Six Classics, Poetry, Novel, Printing Technique (2) Typeboard, Book Storage, and Library.

I think I need to explain two parts of the table of contents first, though we are not going to read them in this class. First, there are entries that list various concepts from Jochik to Manjang, which are types of writing styles that correspond to the types of sentences in Literary Chinese, especially the subgenre of Chinese prose.

It seems that it is hard to provide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items like these, and it actually seems like a one-sided presentation of knowledge. But it's worth reading if you're interested in the style of Chinese prose.

It's not clear what kind of object the last item, Jeonpilineo, is, and if you literally interpret it, it means printing with an electric brush. I guess it's an electric typewriter that Edison made, but I'm not sure. This item is not found in Taixi Shiwu Qiyuan.



The first item is the Writing System and Script and you can understand it as a history of letters. It's relatively long, but I'll read the whole thing first and explain each part.

Writing System and Script (1)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etters yet, so things were recorded by tying a knot with a rope.

Then, Fuxi made the first writing system, which was carved on a tree.

[5,200 years ago] Usually, the use of letters is to express ideas, and they are placed in front of other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intention once they see them.

And it is drawing that makes it the easiest for people to understand the meaning.

For this reason, in the ancient times, drawings were used as letters to communicate thoughts.

Later, people gradually developed this and transformed the picture into hieroglyphic characters, and then developed them again to characters that express sound with consonants and vowels.

Around 5,000 years ago, there were three brothers of the Shihuangshi.

One created the Sanskrit script of Cheonchuk-guk (India). Another made the script of Garoguk, which was written from left to write.

The other one was Cangjie, who made Chinese characters.

Silla's Seol Chong made Idu script for the first time and made it widely used in both official and personal documents.

[1260 years ago] King Sejong of Joseon made the first Korean alphabet with 28 consonants and vowels.

Writing System and Script (2)

Wani, a scholar of Baekje, crossed the sea to Japan during the reign of Emperor Ojin, and taught the Imperial Prince Analects and Thousand Character Classic.

This is the beginning of letters in Japan.



[1625 years ago] During the reign of Emperor Shomu, Kibi no Makibi learned the Tang phonology and made the 45-character katakana.

In the West, it is said that Adam's son, Seth, first made the hieroglyph. Some say that it was made around 2122 BC by Athothis, son of Menes, king of Egypt.

The modern Roman alphabet was first introduced to Greece in 1493 BC by Prince Kadmos of Phoenicia, and after several improvements, it was finally widely used in Western countries.

The number of alphabet letters used in various countries today is as follows: 26 British, 23 French, 27 Spanish, 24 Greek, 27 Slovenia, 27 German, 20 Italian, 41 Russian, 23 Latin, 22 Hebraic, 50 Sanskrit, 32 Persian, 33 Turkish, 28 Arabian.

The author first mentions Quipu, an early form of script, and writing system, and goes on to presents a general theory of letters. He talks about why people started to create letters and then describes the transition from pictograms to hieroglyphs and again to phonograms.

This is based on the idea that some scripts are superior to others and that the change of scripts can be explained by a kind of developmental theory, which can invite criticism from today's point of view. However, I will only point out here that this explanation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summarizes and presents the view that was prevalent at the time.

It is not common to mention the Shihuangshi brothers along with Cangjie, who made Chinese characters, but it's not very rare, either. The scripts that were made by the two people, who were alleged to be Cangjie's brothers, are Sanskrit and the script of Garoguk, and it is not clear what the Garoguk script is.

In literature of the Yuan Dynasty, you can find an opinion that it is a script made in the West, and later succeeded by Mongolian characters and so on. The part that mentions Shihuangshi brothers was controversial in Joseon, which was not because they thought these stories were absurd, but because, it seems, Cangjie, who made the Chinese characters, was mentioned at the end.





As for Korea, the use of Idu script by Seol Chong and the creation of King Sejong's 'Korean alphabet' were mentioned, and it is a little unusual to add '~ years ago' to the description of Seol Chong. Some of the examples of Japan were briefly discussed at the end of the last lecture. It's a description of the origins of Katakana.

As for the Western scripts, it mentions hieroglyphics, and then the Roman alphabet. It goes on to add that the number of alphabets used by each country is different, and makes a list of the details. This can also be found in Taixi Shiwu Qiyuan.

Now, this is the entry 'Six Classics.' It means six scriptures, which refers to six important Confucian texts that were created in China and circulated in East Asia. Therefore, areas without Confucianism would not have Six Classics. Of course, it could have been possible to mention major scriptures of each region such as 'the Gospels,' but at least here, the author didn't bother considering such similarities.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is entry presents the number of letters of each scripture in to the Six Classics. As indicated, in addition to the Six Classics, the number of letters in each of the Four Books is also presented. Of course, Jang Jiyeon must not have counted the letters in the scriptures himself. These figures are already shown in literature such as Xiaoxue ganzhu and Jibongyuseol. By the way, It is interesting that the numbers presented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are different from those in Jibongyuseol.

Next, this is the entry Poetry.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early on because it contains the description of the trichotomy of literature into 'lyric, epic and drama.' It seems unnatural that Jang Jiyeon, who had not studied in Japan, dealt with this kind of knowledge, but this part came from Taixi Shiwu Qiyuan. The trichotomy of literature is not explained in Nishimura's book, but it appears in Shibue's book and accordingly, in its translation, Taixi Shiwu Qiyuan.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beginning of the part in Taixi Shiwu Qiyu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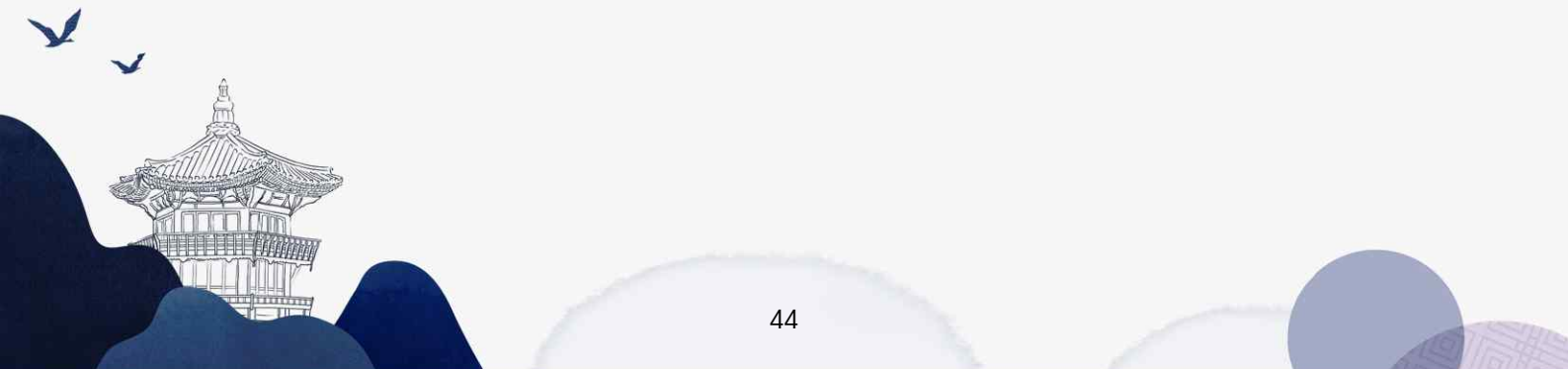
"Greece is the oldest origin of Western poetry. The beginning of poetry in Greece was Linus's, Ialemus's, and Hylas' songs before the great poet Homeros, but unfortunately, they have not been handed down now, so there is no way to learn what they were like. Homeros's Iliad and Odysseia are thought to be the oldest known poetry left. There are three types of poetry: lyric, epic, and drama, which are described one by one below."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description of 'Western Poetry' in Taixi Shiwu Qiyuan is placed among various other knowledge.

First, the author presents the origins of the four-, five-, and seven-syllable poems in Literary Chinese, which is controversial in detail, but the way the origin was discussed based on the number of letters itself is not a problem. Next, he mentions the Korean poems, Maeksuga (Lamentation in a Barley Field), Gonghuin (A Medley for the Harp), and Hwangjoga (Song of the Nightingales).

And then he talks about Western poetry. Although somewhat summarized, the description of Taixi Shiwu Qiyuan is presented here with the core content remaining almost intact. Of course, it's hard to know if Jang Jiyeon would have known the names of Linos, Ialemus, or Hylas, but we can see that they are copied without mistake. He then adds Manyoshu (Myriad Leaves of Poetry) as an example of Japan, which would be more natural if it were below the case of Korea.

At the end, he states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poetry, lyric, epic, and drama, and the explanation of these three types follows. Of course, Taixi Shiwu Qiyuan has the same format. There are some errors in the additional explanations of the three types, which was inevitable for Jang Jiyeon, who must not have had exact knowledge of them.





Next is the entry Novel. On the right is 'Novel' in Taixi Shiwu Qiyuan, and you can easily guess that this content is used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Man'guk Samul Giwon Yeoksa deals with Eastern and Western things together, so it puts China's 'Minor Officials' Stories' in front of it, and changed the expression 'old in novels' of Taixi Shiwu Qiyuan to 'the origin of novel,' which might make a slight difference. The typo in the name of the emperor Nero might be a simple mistake or a result of not knowing much about him.

But it's an interesting view, though it's from Taixi Shiwu Qiyuan, to mention the work of Gaius Petronius Arbiter, nicknamed the Judge of Elegance, as the origin of the novel. His Satyricon is regarded as the prototype of picaresque novels, and this is not widely known knowledge.

Next is 'Printing Technique(2) Typeboard.'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printing techniques are described in three entries, and this is the second one.

First, the author describes the metal type of Joseon, which is worth reading. Of course,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type itself need to refer to other literature with more detailed descriptions. There are some inaccuracies or errors, which I will not specify here, as I pointed them out in the notes in the translation.

In the subsequent part, he has placed a description of the Japanese type. This is what I told you at the beginning of this lecture when I mentioned the typos of the printed publication. In the last part, he talks about wood type and metal type as examples of the Netherlands and Germany. There's still controversy over the timing of the inventions of Laurens and Gutenberg, but the statement here is definitive. As a reader, you need to be careful.



The next entry is 'Book Storage.' It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but I think Jang Jiyeon understood it as a facility for storing books. Taixi Shiwu Qiyuan describes the cases of Egypt, Greece, and Rome, and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records of book storages in China and Goryeo are placed in front of them as 'the Eastern Book Storages.' It might be necessary to examine what system or building each of them refers to. And please remember the Chinese characterization of 'Pisistratus' at the end. To give you a heads-up, this figure also appears in the next item we're going to talk 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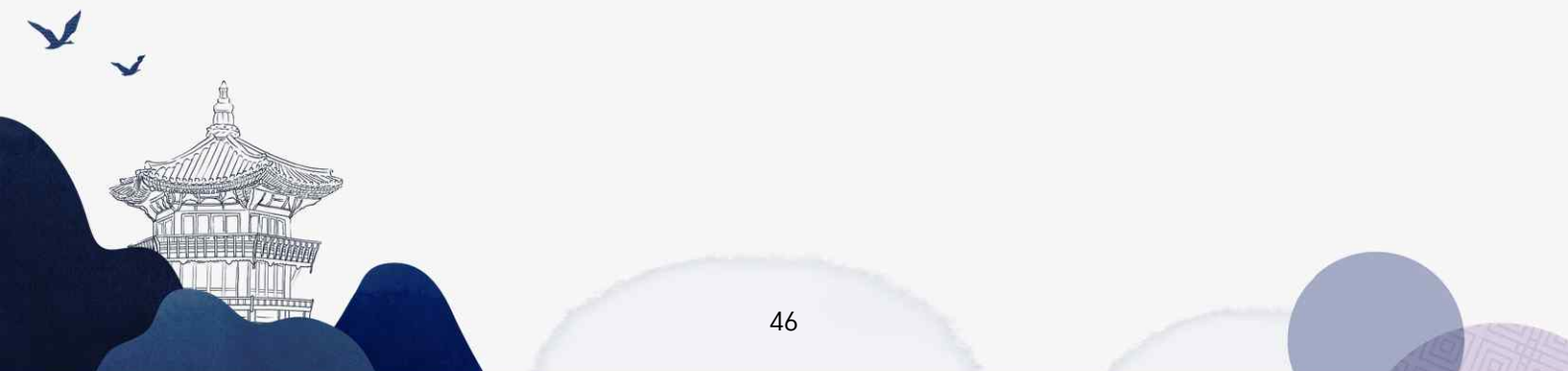
The next entry is 'Library.' It is not clear how it is different from the Book Storage we looked at just now, and it is not in Taixi Shiwu Qiyuan. Although the Chinese characterization is different, the facility created by Pisistratus is mentioned again, so it may actually refer to the same 'thing.'

The Library section first mentions the size and budget of a major library operating at the time, which seemed to be the latest information at that time. Considering this, we can't help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is knowledge coming from newspapers or magazines. It should be understood as reflecting the interest of the time.

There certainly are objects in the East that correspond to Library, but they are not mentioned here because they actually overlap with the ones in Book Storage.

So far, we've looked at some of the items included in Literature and Books. Some examples are inaccurate or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but reading the Eastern and Western cases together can be of considerable help to today's readers.

Next time, we'll talk about Science and Education.





10-4 Science and Education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some of the entries from the chapter Literature and Books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Science and Education of the book. The chapters Science and Education was also the reason Man'guk Samul Giwon Yeoksa attracted attention in various academic fields in the early days. These are the tables of contents of Chapter 5 Science and Chapter 6 Education. We can find more science in Chapter 22 Machines, in Chapter 11 Military, and in many other chapters, but they are mainly applic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Here, we're going to look only at items that are directly classified as 'science.'

In Chapter 6 Education, there are things limited to 'the East' like Sungkyunkwan and Seokjeon, while there are things limited to 'the West' like sociology, philosophy, or university. Here, we will review the contents, focusing on items that show signs of efforts to deal with the East and the West together.

In the case of Chapter 5, the title Science also has a short explanation. It's an unusual case, and I'd like to look at this first and look at other items. The items we will explore together are eight marked in yellow: Science, Fire, Arithmetic, Geometry, Land Survey, Normal School, School for the Blind, and Gymnastics.



First, let's look at the explanation of 'Science,' the title of Chapter 5. I've presented the original text on the right, which has a format that can't be found in other chapters. The passage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The theory of science was invented by a scholar of modern West, and in reality, it is nothing more than the skill of gyeokmulhak (investigation of things) or yugye (Six Arts) of Eastern sages. It is called science because the people of the West newly invented it in modern times and made it into a curriculum of education."

Here, gyeokmulhak means the general traditional studies of extending knowledge by comprehending things, and yugye means the six basic curriculums of Rites, Music, Archery, Equestrianism, Calligraphy, and Mathematics. So, the author is describing a traditional method of study or academic training.

The new invention in the West is described as an act of turning something that was not very different from gyeokmulhak or the Six Arts into an 'educational curriculum.' In other words, he is saying that the content element of science has already been existing, which was one of the widespread views at the time rather than Jang Jiyeon's personal opinion.

This is the fourth entry 'Fire' in Chapter 5. There are many ways to understand fire, and here the author describes the Eastern and the Western understandings of fire through myths.

As an example of the East, Suiren is mentioned first, and then the Change of Fire in Rites of Zhou is described. Rites of Zhou presents the view that firewood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ason, and it was referred to as gaihuo, which means changing the fire.

The type of tree used each season depends on the color of the Five Elements. It is an unquestionable logic at the time when the theory of Five Elements was widesprea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the trees used in summer cannot be perch or birch. Perch and birch trees are black-colored, so they should be used in winter.





Meanwhile, the myth of Prometheus is presented as the origin of the Western fire. It may be somewhat unsatisfactory from today's point of view to bring about myths without mentioning various inventions or discoveries about fire, but it also seems natural in terms of the consistency within the entry.

The next entry is Arithmetic. It can be understood as calculations or arithmetics. It's a typical example of a contrast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ases.

Examples of the East include Li Shou of the Yellow Emperor's reign, the description in I Ching (Book of Changes), The Nine Chapters on the Mathematical Art from Zhou Dynasty, and the episodes of Yi Xing from the Tang Dynasty and Shao Kangjie of the Song Dynasty. Yi Xing completed the Dayan calendar, and Shao Kangjie was the person who introduced mathematical philosophy to the world by writing Huangji jingshi (Book of Supreme World Ordering Principles). For accurate understanding, we need to look at each of them in detail, but we have to stop here, and if you are interested, I recommend that you read more of the notes in the translation and the literature on Eastern mathematics.

Meanwhile, the Western example includes Thales, and Pythagorean multiplication, or multiplication table.

The next entry is Geometry. I'd like to show you for a moment because the original text includes a picture. In the translated edition, as you can see on the left, uses the same picture. The story of Thales is mentioned first, and the Pythagorean Theorem follows. In fact, a solution similar to the Pythagorean theorem was also being used in traditional Eastern mathematics, but Jang Jiyeon doesn't mention it here perhaps because he didn't know it exactly.

The next entry is Land Survey. It talks about why land surveying was necessary, along with the technology and tools of it.



In the beginning, he refers to the *tugui* (earth rule) used by the Zhou Dynasty, but he describes in more detail the anecdote of an earlier point that Shu Hai of Xia Dynasty measured the length of the land. This is because it shows more aspect of land measurement, but actually it is close to a mythical explanation. Shu Hai, a liege of Yu the Great of Xia Dynasty, was known as a person who was good at walking, and he walked more than 500 million steps to measure the length of the land.

This anecdote is said to be included in *Shanhaijing* (the Classic of Mountains and Seas), but it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description of *Shanhaijing*. According to *Shanhaijing*, Shu Hai held wood stick in his right hand, and the number of steps was slightly different.

Meanwhile, as for the Western case, the author says that the flooding of the Nile forced the construction of new boundaries in the fields, which was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land surveying. He doesn't give any specific example of land surveying probably because he has already told us the 'origin.'

The entry is Normal School in the chapter of Education. It is likely to think that normal schools came from the Western educational system, but *Man'guk Samul Giwon Yeoksa* searches beyond this and explores historical records to find their origin in the East.

In this entry, the author begins with the case of Korea. He finds the origin of normal schools in the Silla education system, and cases of training teachers for local and central education in Goryeo are discovered. He goes on to describ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pecific normal schools, the Royal English Academy and Hanseong Normal School during the reign of Taehwangje, that is, King Gojong.



Then he describes the anecdote of Wen Weng, who served as the Governor of Shu County during the Western Han Dynasty, which preceded the case of Korea. It is not usual, but this unchronological arrangement might have happened because these cases are not examples of full-fledged normal 'schools.' In the last part, he mentions the normal school established by Francke in Germany, and if he only dealt with 'Normal School' and not the whole area of 'teaching,' this should have been mentioned first.

The next entry is School for the Blind. It would be natural to mention only the Western cases for School for the Blind, but Jang Jiyeon seems to have tried to find similar cases in the East.

He mentions the school founded by Haüy in France as the origin of the school for the blind. It is Austrian musician Paradis who helped Haüy to create the 'concave letters.' Paradis was born the daughter of an aristocrat, but she lost her sight when she was young, and she was able to become a pianist because of her excellent memory and hearing. Haüy is said to have created early braille in convex shape with the help of Paradis, so the expression here, 'concave letters,' is not accurate.

It is difficult to call the case of the East as a 'school,' and perhaps that is why Jang Jiyeon describes it as follows with the expression, "on the lookout." "Since ancient times in the East, blind people have been made to learn music and become musicians, who are called 'gosa (blind teacher).' In Korea, they were also engaged in the practice of a shaman or a fortune-teller."

Next is the entry of Gymnastics. On the right is the original text of the Gymnastics entry included in Chapter 11 Hygiene of Taixi Shiwu Qiyuan. You can tell that the first part of this entry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summarizes the contents of Taixi Shiwu Qiyuan. Of course, the main content is intact, that it originated from Greece and that the original name was 'jeomsasajeok (Gymnastic).' However, at the end, he brought something that was not in Taixi Shiwu Qiyuan, with the expression 'on the lookout,' again, at the end. It is about Sparta's physical examination, and if you read it, you could guess that it was taken from newspapers or magazines.



So far, we have looked at some entries included in Science and Education. Here, we could see the traces and results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East and the West together, even mentioning myths.

Although not included in this lecture, there are not a few items that only deal with the East or the West, and these items are also worth reading to check the level of knowledge at the time. I recommend that you find it and read it yourself after the lecture. Next time, let's look at Politics and Economy.

10-5 Politics and Economy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some of the items included in Science and Education chapters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this session, we're going to look at Politics and Economy in the book. The chapters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at correspond to these subjects are chapter 10 Politics, Chapter 15 Commerce, and Chapter 16 Agriculture, and at least by the time this book was published, they don't seem to have been established as independent fields that have definite boundaries like those of today.

Here's the tables of contents of Chapter 10 Politics, Chapter 15 Commerce, and Chapter 16 Agriculture. These are the parts that deal with things that belong to politics and economy, but the components don't seem to be completely consistent with today's interests.

Chapter 10 Politics contains Taxation, Household Cloth Tax, and Grain Loan at the beginning, all of which are related to imposing tax. In the traditional sense of 'politics,' imposition of tax was the most important issue, so it begins with these items.

On the other hand, this composition is far from that of Taixi Shiwu Qiyuan. In Taixi Shiwu Qiyuan, the chapter was titled Political Law, and Punishment was included along with Taxes, Securities and Stamps, Awards, and Government Bonds.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penal punishment part was deleted altogether, and it is not clear why.



In Chapter 15 Commerce and Chapter 16 Agriculture, you can find a number of items related to commerce, trad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but not all of them can be read here. However, many parts are worth reading, so I recommend you to look at them one by one after the lecture.

What we will read together are nine items marked in yellow. Taxation, National Flag, Securities and Stamps, Voting Law, Government Bond, Bank, Pawnshop, Cultivation, and Hwaryun Plow.

This is the first entry in Politics, Taxation. I divided it into (1) and (2) because it is long. The original text is continuous. Let's read the whole thing first and look at the necessary parts some more.

Taxes (1)

At first, the Yellow Emperor created the well-field system and declared the center section as the public field and 1/10 of the yield as tax.

This is the beginning of taxation. In the 12th year of the Duke Xiao of Qin, the path of the field was opened up and the land tax was set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beginning of land taxes in later generations. [Around 2250 years ago]

In the first year of Emperor Cheng of Jin, the farmlands of the people were measured for the first time, and three sheng(升) of rice per mu(畝) were collected as taxes.

This is the beginning of grain tax for fields. [1580 years ago]

In the 4th year of Emperor Gaozu of Han, the first Suanfu was implemented in which people aged 15 to 56 paid 120 mun in taxes.

In the fourth year of the Emperor Zhao of Han, Koufu were collected in which people aged 7 and 14 paid 23 mun for Kouqian(head tax). [1990 years ago]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poll tax.

—On the lookout, taxes in history are so complicated that I cannot record them all here.—



Taxes (2)

In Korea, Gija set up a capital city in Pyongyang and established the well-field system for the first time to set up a tax system.

In the 21st year of King Seongdeok of Silla, Jeongjeon (field given by the government) was offered to the people for the first time. [1186 years ago]

In Goguryeo, five pils of hemp cloth and five seoks of grain were paid as tax.

Jobless people paid taxes once every three years, and 10 people paid one pil of cloth together.

Each house paid one seok of grain for land tax, below which was seven dus, and five dus. In Baekje, the imposed tax was paid in cotton, silk, hemp, or rice, but they were collected differently each year depending on the harvest.

In Japan, Emperor Kotoku first established the Family Register and the Field Law. And the law of Zu Yong Diao and the village foremen system were established. [1265 years ago]

In the 10th year of Emperor Monmu, the first Land Tax Law was established. [1203 years ago]

It was first established in Rome in the West.

Jang Jiyeon tried to summarize China's previous tax systems, but it was so complicated that he had to say, "I can't record them all here." He begins with the well-field system, then the origins of the land tax and the poll tax, respectively.


Examples of Korea include Gija, King Seongdeok of Silla, Goguryeo, and Baekje, and examples of Japan include the days of Emperor Kotoku and Monmu. At the end, it briefly states the Western case as "It was first established in Rome," which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the description of Taixi Shiwu Qiyuan. Taixi Shiwu Qiyuan says that it was during the Roman period that taxes were legislated and reorganized.



The next item is National Flag. It's not in Taixi Shiwu Qiyuan. Perhaps because of that, even though the people at that time were interested in it, it only includes cases of Korea and Japan. In the case of Korea, the traditional representation is mentioned first, followed by the origin of the national flag.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 recent years, all countries communicate, so warships and merchant ships use flags to mark their national emblem. In Korea, Taegeuk (supreme ultimate) was originally respected and revered. So they all drew Taegeuk on the gate of the government offices. After signing the Treaty of Amity with Japan in the 13th year of Taehwangje (Great Emperor), Taegeuk medal was designated as the insignia of the country. In the 22nd year of Taehwangje's reign, the Taegeuk insignia was used to send envoys after signing the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nce then, it has become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In Japan, in the 6th year of Emperor Komei, Nisshoki (flag of the sun) was designated as the national emblem for the first time, and each ship had to raise one."

The next item is Securities and Stamps. It talks about the case of China first, and then the Western case of issuing stamps during the era of Felipe II of Spain. China's case was not defined as the 'Stamp,' but Jang Jiyeon seems to have understood it as actually functioning like one, so it is mentioned.

You can find the source of the Chinese example in Wenxian Tongkao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Literature), which shows that yinqiqian (stamp tax for contract) was collected in the second year of Kaibao (Opening of Treasure) of the Song Dynasty. The 'third year'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may be an error, or it may be a misunderstanding caused by different standards for handling the year of accession when counting the year. During the Song Dynasty, when a sales contract was established, the stamp tax was paid to the government office, and the government office issued a kind of notarized certificate to both sides of the transaction. Jang Jiyeon seems to have interpreted it as close to Western stamps.



The next entry is Voting Law. It deals with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long with the ostracism in Athens, Greece.



The description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s not wrong, but it is hard to say it is accurate.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vote was held when selecting the second president in December 1796, while the president was inaugurated the following year in 1797. By the way, Chinese characterization of the name John Adams here is interesting because it puts the surname before the first name, so it reads Adams John.

The next item is Government Bond. 'National bond' was the 'thing' that attracted a lot of social interest in Korea at the time. So there must have been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amount or history of government bonds of the West, which is mentioned only briefly here.

'Bizhaitai (debt-avoiding shelter)' mentioned in the Chinese case refers to an ancient tower where the king fled to avoid creditors. The last king of the Eastern Zhou, King Nan, borrowed money from the rich to fight the war, lost the war and suffered from demands of creditors, and eventually ran away to Bizhaitai. The Tang Dynasty's case looks similar to Nan's story, but it differs in that it was done more officially. Since government bonds are different from private loans, even if the courses of events are similar, only the case of the Tang Dynasty can be called government bonds.

As for the case of Korea, he mentions chajeonryeong (loan act) in Goryeo and the bringing in loan from Japan in the year of Eulmi, and for Japanese case, he mentions the construction of railroads with foreign debts with maritime customs as collateral. At that time, these events, not far away in time, must have attracted social attention. The Government Bond entry can be said to receive relatively strong influence of the realistic interest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next entry is Bank. It first mentions the Zhou Dynasty's Nine Departments Money Regulations, and the National Bank of Japan,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5th year of Meiji, and placed the origin of European banks behind it. The European cases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the entry of Bank of Taixi Shiwu Qiyuan, but it also seems to include knowledge from other sources or information. This assump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year of 808' doesn't appear in Taixi Shiwu Qiyuan.



It is not clear why he adds a description of the UK's bank at the end. You might think of it as referring to the origin of the central bank, noting that the United Kingdom wa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but that might not be the case because Sweden's central bank was established earlier. It seems that another material, which is believed to be a newspaper or magazine, is the source, but the specific material has not been identified yet.

The next entry is Pawnshop. It deals with both the Zhiji of China and the pawnshop of the West. Both are reconfirmed their origins through later vocabularies. Zhiji mentioned in the Rites of Zhou is an accommodation bill issued by the government, and considering that, in the Qing Dynasty, pawnshops were called Zhiwu, it must be related to the act of pawning. Likewise, the fact that the people of Lombard in the West first opened pawnshops can be reconfirmed by the fact that 'Lombard' is used as a pawnshop-related vocabulary. The example of this is hard to find in English, but you can find it in German and Russian vocabulary.

The next entry is Cultivation in the chapter of Agriculture. He describes the cases of China first, followed by the cases of the West and Korea. Among them, Shennong's story, who first made farming tools and taught cultivation, and Cain's story, who was referred to as the 'land cultivator,' belong to the realm of mythology. Considering this, ugyeong (cattle cultivation) of King Jijeung of Silla, which means cultivating land with oxen, mentioned at the end, seems rather peculiar.

The next entry is Hwaryun Plow and Waterwheel. 'Hwaryun Plow' probably refers to a steam-engined farm tool, and it mentions various kinds of farm tools made in the United States in 1855. Considering the timing and content, this is believed to be knowledge derived from newspapers or magazines of that time.

Waterwheels designed or manufactured in Japan, China, and Korea are not actually 'hwaryun plows.' But there's a similarity in that they used the power of water. Although it took the form of an appendix, you can't say that there is nothing in common between hwaryun plows and waterwheels.



So far, we've looked at the text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although only a little. We were able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yuseo as well as the aspects of knowledge exchange that took place through the Netherlands, Japan, and China, and think about the struggling of traditional intellectuals in the changing intellectual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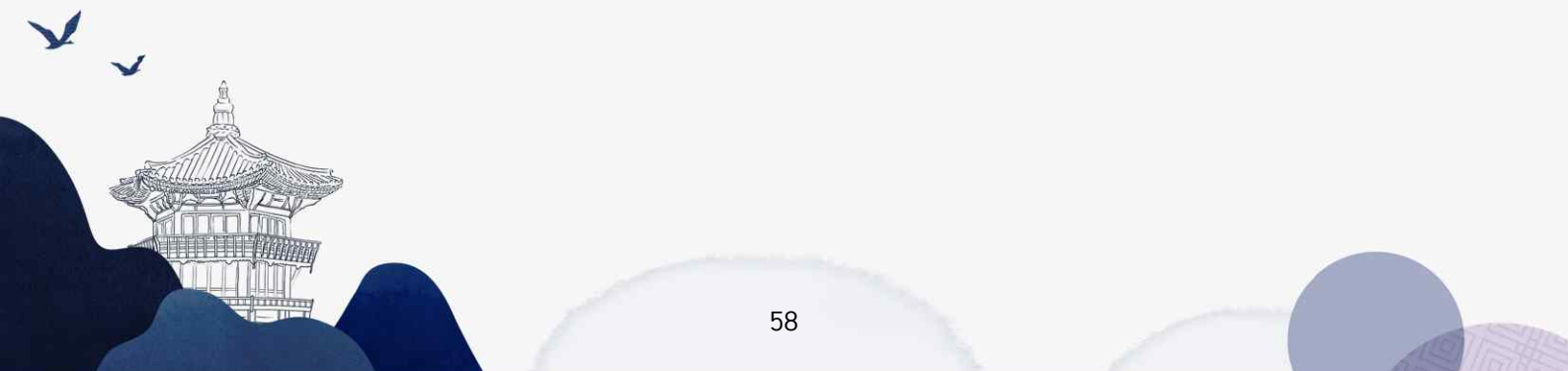
Let's wrap up this lecture by looking at the section that gives a glimpse of the 'common sense of the time,' which was mentioned briefly in the last lecture.

The first example is a description that has mistaken names of Western places and people. Bayonne and Pistoia are names of cities, but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y are described as names of people. In fact, these errors originated from Taixi Shiwu Qiyuan, and it should be noted that for people accumulating knowledge through translation at the time, the danger of this kind of errors was always around.

The second case is the misunderstanding of the name of Jang Yeongsil as Jang Yeong. Jang Yeongsil is a highly regarded figure in the history of Korean science, but it seems that he was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in the past, just about 100 years ago. In this book, Jang Jiyeon mentions him three times but always marks him as Jang Yeong. It's probably because he wasn't as widely known at the time as he is today.

The case of error is not just a matter of interest. It can be interpreted as a clue to the situation in which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the struggles of the intellectuals were taking place at that time. I think it would be rewarding to follow the traces of these struggles by reading the parts we have looked at together, or those that we haven't looked at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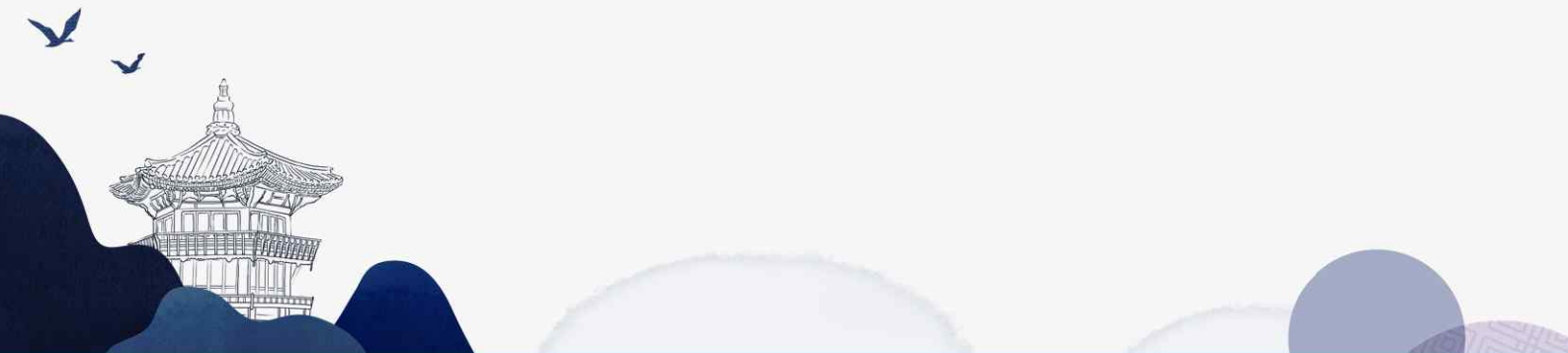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This is the end of the lecture o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 10 周

解读《万国事物纪原历史》

10-1

《万国事物纪原历史》的构成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万国事物纪原历史》课程主讲的黄载文。

这节课是我们的第十节课，是上一节课以“《万国事物纪原历史》的理解”为主题的课程的后续篇。在这节课中，我们将探究《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的内容。因为我们无法在课上完整地阅读这部作品，我们先来看看篇章和项目的构成，我摘取了其中一些部分，我们来一起读一下。在阅读的过程中，我们需要思考一下传统文献“类书”的性质，而且要寻找一下符合现代社会观点的解读方法。

在上节课中，我们提到了《万国事物纪原历史》的性质和创作过程，以及探究了这部作品的学术史意义。虽然今天这节课的内容，还是无法涵盖很多作品相关的内容，但我想上完今天这门课后，大家可以自己阅读这部作品。

《万国事物纪原历史》使用的是韩语和汉字混用的文体。韩语和汉字混用的文体一般会比纯汉文的内容更容易理解，而在这部作品中，对于西方的事物，人物，事件等出现固有名词的内容，用音译的方式，使用了汉字进行标记，使得原文更不容易阅读。所以在这节课中，我们将一起来读一下2014年发行的译注版。

1909年出版的《万国事物纪原历史》的原稿本有250页左右，而译注版则超过了700页。如照片所示，这本书十分厚。

因为在这个版本中，对于用汉字标识的固有名词，使用了现代语言进行解读，指出了原文的引用出处或错误，并且标注了相关项目的附加信息，所以内容量相较于原稿本有了十分大地增加。虽然还是有很多不完善的部分，但我们现在以这个译注本为基础对《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进行研究，是相对高效的方式。

但这个译注本是在学术界讨论《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之前出版的，这一点需要提前和大家进行说明。虽然我们在上节课也提到过，如果参考《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的话，可以进行更为准确的解读。



这个译注本是将西村茂树的《西国事物纪原》和张志渊编写的原稿本进行了对比，在这节课中，我们将也一起对《西国事物纪原》中有必要的片段进行探究。

我们先来研究一下《万国事物纪原历史》的构成。在上节课中，根据原文的标记，我对整体结构进行了整理，并展示了相关的资料。那我们就从译注本的目录开始今天的课程。用了现代的语言进行解释，所以读起来更容易理解。对于原文的汉字标识有兴趣的同学，可以参考上一节课的资料，或者译注本后面的附录收录的原文。作为参考，译注本收录的原文是引用经过与原稿本对比的点校本中的内容。

首先是第1章至第7章的目录。其中，针对第1, 2, 4, 5, 6章，我们这节课会仔细地进行研究。对于各项目的目录的内容，我们先停在这个画面，仔细地看一下。

这是第8章至第15章的目录。这是第16章至第22章的目录。第22章机械的最后一个项目为“各种机械”，像上节课说的那样，这个项目的原文标记为“机械”。在其他项目中提到过的事物或事件，在这个项目中有重复提交的现象。并且，汉字标记有所不同。虽然在这节课中，我们并没有提到第22章的内容，但如果是对西方事物，特别是对科学技术相关的知识运用感兴趣的读者们，一定要看一下这章的内容。

这是第23章至第28章的目录，以及原文的篇章目录。

从第1章至第28章，整体的结构遵循了类书常见的“天-地-人-事-物”的排列顺序。但是，事和物相关的内容占比十分之大，是因为在这一时期，之前在传统类书中并没有记录的“事物”相关的内容，开始大量地出现。上节课我们已经说过了，虽然这部作品在结构上是大致参考了《泰西事物纪原》这部作品，但是在具体内容上并没有直接引用。

我们再来看看《万国事物纪原历史》的原稿本内容。我们在上节课都有所提及，为了检阅而提交的原稿本以及现在实际流通的刊行本，我们这节课来看看两者之间的关系。

大家看到的图片是原文第一部分的内容。左侧是原稿本，右侧是刊行本。可以确认的是，在两个版本中，中间部分都有换行的现象。区分项目进行叙述，在地区或事件不同的部分，都使用了换行的方式进行区分。因为是涉及“万国的事物”，这种区分方式对于读者阅读十分有用。



虽然原稿本有检阅的痕迹，但在文稿中也有一些和检阅无关的修改痕迹。在原稿本中，作者在初稿的基础上，增补了一些信息进行修改，但是因为刊行本是活字印刷本，所以没有留下相关的痕迹，所以两者在是否有修改叙述内容上存在差异。

我们来看一个例子。左侧是原稿本的“井”，即水井的项目，最后部分出现了日本相关的信息。但是在它的下面有备注“这个应该放在莲花石条目下面”的注释。在右侧的刊行本中，有按照这个注释进行实际内容的调整。即，在原稿本中水井项目最后部分的内容，在刊行本中被收录至莲花石的项目之中。而在刊行本中，这句话当然也被去掉了。

虽然这种情况很少见，但这是只有在刊行本中才看到的内容部分。在活字项目中有针对日本活字进行叙述的部分。而这部分内容并没有出现在原稿本中。这部分应该是在完成初稿撰写之后，被补充进作品的内容。它的方式，应该和我们上节课提到过的“镜子”的情况差不多，但不知道是因为检阅的原因，还是其他原因。

这个段落中有很多的错别字。这部分的文体和其他部分略有不同，出现了“加藤清正이가”(“이가”是韩语助词)等口语化的表现。但是，并没有出现像“镜子”这个项目中，日本的三神器这种不自然的描述，而是补充了“活版”里面应该要出现的内容，弥补了内容层面的不足。

如果我们想象一下当时的情况的话，有人不是使用文章或者正式的文件，而是通过口语化的表达传达信息，在提交检阅本和等待的期间，应该是很着急地要将这一信息添加进入作品之中。

这节课，我们介绍了《万国事物纪原历史》的译注本，一起探究了和原稿本相关的一些问题。这是为了更高效地阅读《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的原文内容而做的准备工作。下节课，我们将一起学习一下天文和地理部分的原文内容。



10-2 天文和地理

上节课，我们介绍了《万国事物纪原历史》的译注本，一起探究了和原稿本相关的一些问题。这节课，我们将一起学习一下天文和地理部分的原文内容。我们无法看完《万国事物纪原历史》28章的所有内容，我们重点看一下可以反映整体特征的部分，以及对阅读理解有帮助的部分。

正如前面所提到的一样，项目排列使用了普通类书的结构“天-地-人-事-物”，其中永远不会变的就是开头部分是“天-地”。而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则被称为“天文”和“地理”。

这是第1章天文和第2章地理的目录。这里列举出了两个篇章中都包含的项目。虽然如果能完整第看完所有的项目会更好，但是时间有限，我们比较难做到这一点。对于需要我们一起学习的项目，我已经用黄色进行了标识。在第1章中有天神，太阳和月亮，天气预报，日与夜，时间，在凌晨和黄昏鸣响的大钟；在第2章中有地动说，洪水，环球航行。

首先，天文中的第二个项目是天神。在作品中有一个例子，是指一个天上存在着神灵或把上天作为神灵。这个内容在前近代的“类书”和《泰西事物起原》的两侧都很难找到。张志渊有自己独特的文化层面解释。

右侧是原文的图片，左侧是译文和注释。首先，在《五经通义》中截取了中国及东亚对天神的理解，接着是在犹太人的“圣经”中提到的天赋或天主的事例，最后，提到了高句丽对于天的标记，以及对于天神的祭祀。因为这三个层面的叙述内容不同，所以就区分了不同的行。

在作品中有记载《五经通义》是汉代刘向的著作，把昊天上帝称为天皇大帝或太一。其中有昊天上帝相关的内容。这里的“五帝”，一般是指“上皇五帝”或“三皇五帝”，并不是真实的帝王，而是根据五行设置的抽象性的帝王。把方位与色相关联，这在前近代东亚社会中是很常见的现象。

天父和天主在儒家是被视为上帝一般的存在，这是一个可以被视为从比较文化的视角进行分析的事例。虽然像这样的说明方式在史学相关的文献作品里很常见。书中指出在高句丽，把上天标记为“한을[汗乙]”。可以从语言的层面对历史进行推测，看出当时的学风。



接下来是“太阳”和“月亮”。“天文”这个篇章，像普通的类书一样，由宇宙的生成，天上的星辰和气候现象等内容构成。而第1章中出现“太阳和月亮”的内容也是一件很自然的事情。而在《泰西事物起原》的第1章“天时”中也提到了太阳和月亮。但是，两者的方向略有不同。

我们在前面提到了在东方的文献作品中，对于太阳和月亮的记叙内容，主要是从神话领域进行说明的。在《说文解字》和《五经通义》中，叙述内容都带有不少神话性质的理解，而在《淮南子》中，以神话性质的理解为基础，对当时的情况进行了解释。在《唐书》中，收录了在中国史书记载的对于新罗风俗的记载。

在西方国家，即论议西方事物的部分中，首先提到了把太阳作为男神，月亮作为女神的神话性的理解，然后事情的走向开始渐渐有所不同了。泰勒斯对于以前将太阳和月亮视为神灵的习惯进行了批判，并提出了以下观点：“太阳是星星，变为了水蒸气，然后形成了炙热的火焰。月亮自己是不会发光的，因为受到太阳光的影响，才会散发出光芒。在这里还补充了意大利人的伽利略基于观测和实验得到的自然科学知识相关的内容。

在这个项目中，出现了“在现在之前的几年”这种表现。而“现在”是指《万国事物纪原历史》出版的1909年。尽管时间表述上不一定准确，但像这样记录时间长度的相关内容，也是这本书的特征之一。在我们之前学习的天神这一个项目中没有出现这样的表现，是因为不确定“天神”就是人类历史开始的起点。

接下来是天气预报。用当时的语言来说，应该是“天气豫报”。右侧是《泰西事物起原》，左侧是《万国事物纪原历史》的原文和译文。内容比较简单。“英国的海军少将罗伯特·菲茨罗伊从1805年开始对掌握了一定的航海知识，开始对天气产生了兴趣，最初发明了天气预报的制度。对于很多国家的航海事业发展都有非常大的帮助。

《万国事物纪原历史》的撰写很有可能参考了《泰西事物起原》的叙述内容，如果是这样理解的话，张志渊有一篇内容摘抄自《泰西事物起原》，把“英国”改为了“英吉利国”。那个时期的读者，相较于“英国”，应该对“英吉利国”这个名称更为熟悉。

接下来是日与夜。对于日与夜怎么理解的这个问题，就带来了“如何划定一天的开始标准”这个问题。





在东方，太阳升起的时候是白天，太阳下山之后是晚上，子夜是一天的开始，在这个常见的内容后面补充以下内容。在新罗和高句丽，使用了“罗朝”这个词语，分别形容白天和晚上。在古语里面，“罗朝”这个词语意为晚上，这一解释也广为流传至今。但在新罗，该词语的词义与此不同，相关的故事也比较少人知道。通过叙述的语言，可以推测当时的学风和相关的释义。

在西方国家，经历了希腊，巴比伦和阿拉伯后的罗马时期，认为午夜是一天的开始，相关内容在《泰西事物起原》中有所记叙。

接下来是“时间”。从传统的观点来看，一般都认为时间和天文之间有着密切的关系。所以，在类书中这是基本不会被遗漏的，经常会出现的项目。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提到了东方和西方的差异，以及西方的变迁等内容，甚至提到了那个时期时间计算方法的出现，所以相关的说明内容比较复杂。

为了更好地理解东方的时间计算方法这部分的说明内容，我们有必要进行一些事前的说明。首先，这里提到的时间计算方法是在使用时宪历之前的时期，我们有必要说明这点。在使用时宪历之前，把一天分为十二份，由1时构成，和之后的计算方法有所不同。把1时分为两个部分，前面是初，后面是定。

前面是初初刻，初一刻，初二刻，初三刻，初四刻。后面是正初刻，正一刻，正二刻，正三刻，正四刻。初初刻和正初刻的长度等于剩下的8刻的六分之一。在使用时宪历之后，计算方法有所不同。一天由12时组成，1时被均分为8刻。即，一天由96刻组成。

在西方国家，在布匿战争后开始使用与现在相同的时间计算方法。在介绍了埃及和希腊，犹太人的时间计算方法之后，介绍了罗马的时间计算方法。并且以“现在”为基准，进行了时间计算方法的介绍，便于读者的理解。

接下来我们来看看天文的最后一个项目“在凌晨和黄昏鸣响的大钟”。因为已经知道了敲钟的时间，所以这个项目被收录在第1章天文里面。

虽然在其他的地方应该也有很多起到这一作用的大钟，但作品中出现的大多是韩国的事例。对于韩国的事例部分，应该是基于《增补文献备考》中的“晨昏大钟”内容进行了整理，有一些错误应该是在整理过程中产生的。例如，把“世祖3年”错误摘抄为“世宗2年”，因此后面的“8年”和“14年”也被误认为是世宗时期。



在最后有出现日本的事例，但在内容上与这个项目并不匹配。有提到因为含冤受屈的事情而敲钟的内容，和时间没有关联性。所以，从这点来看这个内容应该不是属于“天文”分类下的。但也不知道为何此处内容会包含日本的钟。而在《泰西事物起原》中并没有出现类似的项目。

接下来是在第2章记载的“地动说”这个项目。在《泰西事物起原》中，这个项目收录于“天时”之中，而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则被收录于“地理”这个篇章之中。保留了对“西方事物”的叙述，但更换了章节，应该是张志渊由自己的一套逻辑。

我们先来看看西方事例的后半部分。介绍了尼古拉·哥白尼的地动说，开普勒说明了轨道和地球的模样。此处的“地”，即陆地，是指作为行星存在的地球。张志渊在前面东方部分，阐述了“地表发生运动的观点”，而与之相对的是，当时认知的“地”，仅仅是与天相对于的地。而这与陆地是作为行星存在的地球这一说法相悖。

如果是这样的话，那么地应该是呈水平或垂直运动，将这两部分的内容放在一起的设计，体现了作者独特的逻辑和想法。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可以发现由于时代和地域的差异，带来的文化上的差异，这个项目的记叙可以作为一个有趣的事例体现上面这一点。

接下来是“洪水”和“环球航行”。这部分的内容虽然不多，但是相互之间具有一定的关联性，我们来研究一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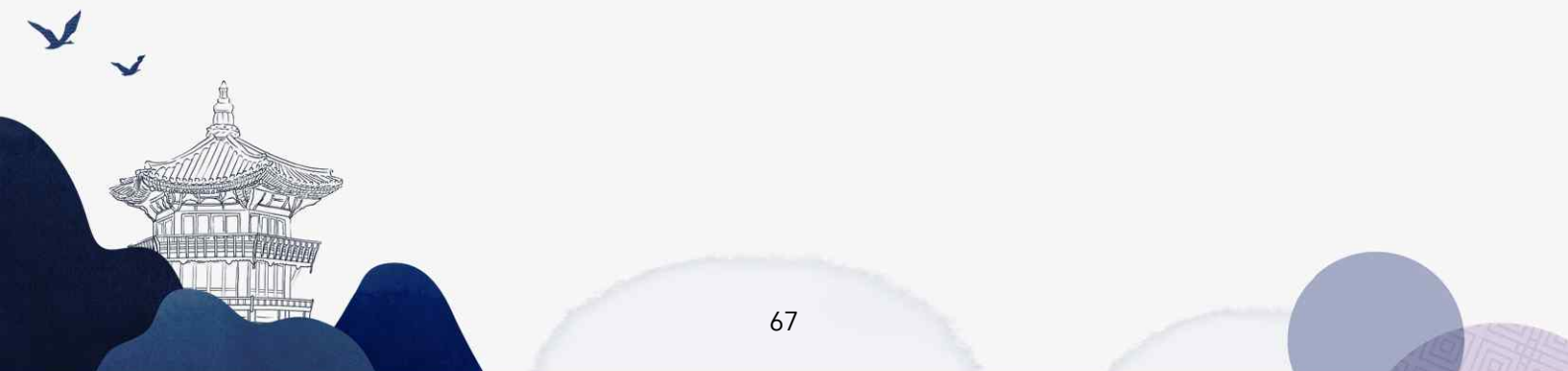
在洪水这个项目中，提到了尧帝时期的洪水和诺亚的故事。这个是东方具有代表性的洪水故事。对于发生在尧帝时期的洪水，使用了胡寅对此事的解读。所谓“洪水”，一般是因为暴雨而发生的灾害，尧帝时期的洪水是因为没有建设好排水系统而导致的。逆是违背的意思，但这里的“逆水”一般是指不同方向的水流。而诺亚的方舟这个故事，虽然是因为暴雨而引发的洪水，但和普通的洪水灾害也有些不同，但是这两个洪水相关的故事具有相似性。

在环球航行方面，有广为人知的麦哲伦环球航行的故事，而与之相对的是，大禹的航海故事。大禹经历了这次航海后，撰写了《山海经》这部作品。《山海经》是大禹和伯益撰写的作品，前汉末期的刘歆对这部作品进行了校对，这是一本十分具有价值的中国古代地理书。

这节课，我们学习了收录于天文和地理篇章下的一些项目。将神话知识和自然科学知识放在一起可能有些不自然，而通过这个新颖的组合方式，可以引发新的思考。



下节课，我们将一起探究一下文学和书籍相关的内容。





10-3 文学和书籍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收录于《万国事物纪原历史》天文和地理篇章下的一些项目。

这节课，我们将一起探究一下文学和书籍相关的内容。这节课，我们主要学习文学和书籍，那个时期的文学，不是指今日的文学（Literature），而是指“文字和文章”这一传统的概念。实际上，在传统的类书中，把“文章”独立地放在一个篇章这种做法很常见，像《芝峰类说》一样，有人评价这部作品的这个篇章内容占比过大。在前近代类书中，这个可以说是核心的部分。

这是第4章文事的目录。与“文学和书籍”相关的事物，主要被收录于第4章之中。虽然如果能完整地看完第4章会更好，但因为时间有限，我们只选取了几个具有特点的，需要深入说明的项目，一起来研究一下。我们要一起研究的项目我标注了黄色，一共有7个，分别是书契与文字，六经，诗歌，小说，印刷术（2）活版，书籍官，藏书楼。

但接下来我们不是要读这些部分的内容，而是先对目录中的两个部分进行说明。首先，我们看到有项目罗列了从诏书到挽章的内容，这些都属于汉文这一文章类型，这些文体都是汉文散文的次体裁。

在这种项目中，很难体现出比较的观点，实际上就像叙述普通内容一样进行记叙。但是，如果对汉文散文的问题有兴趣的读者，这部分的内容值得一看。

最后是“电笔印书”这个项目，虽然从题目来看，不确定涵盖了哪些事物，如果从每个字的释义来看，是使用电笔写书或文章的意思。虽然有人推测是爱迪生发明的电动打字机，但好像也不正确。而在《泰西事物起原》中并没有出现这个项目。

第一个项目是“书契与文字”，可以将其理解为文字的历史。这一个项目篇幅相对较长，首先我们先看看整体的内容，再针对部分进行说明。

书契与文字（1）



以前，在还没有文字的时候，是通过草绳打结的方式来记事的。伏羲首创了书契，其使用了将文字刻到树木上面的记录方式。【距离现在的5200年前】大部分的文字是用来表达自己的想法的，所以当其他人看到眼前的文字时，应该看一次就理解其中蕴含的意思。但是，让人最容易理解的方式其实是图画。因此，在远古时期，将文字融入图画里面，使人们互相沟通。在那之后，取得了进一步的发展，将图画进行变形，发展为了象形文字，然后再下一阶段，就发展成为了表现子音和母音的表音文字。距离现在的5200年前，有史皇氏的皇帝三人。有一人发明了天竺国的梵文文字。有一人发明了伽卢国的文字，这是向左写的文字。还有一人是仓颉，创造了中国的汉字。新罗的薛聪创造了吏读文字，并被广泛地应用于公文之中。【距离现在的1260年前】我们朝鲜的世宗大王首创了28个字的字母，并将其作为国文。

书契与文字 (2)

在日本，应神天皇时期，百济的博士王仁前去教皇子《论语》和《千字文》。这是日本的文字的开端。【距离现在的1625年前】圣武天皇时期，吉备真备学习了唐朝的音韵，首创了45个字母的片假名。在西方国家，亚当的儿子塞特[Seth]首创了象形文字。有人说这是把公元前2122年埃及国王美尼斯(Menes)的儿子亚多德斯创造的文字。现在的罗马文字是公元前1493年腓尼基的王子加多马斯(Kadmos)，在到达希腊之后，最先开始对那个时期的文字进行了传播。之后经历了多次的改良，最终在欧美多个国家广为流传。在当今社会多个国家使用文字的字母数如下所示。英国26个字母，法国23个字母，西班牙27个字母，希腊24个字母，斯格拉窝尼亚27个字母，德国27个字母，意大利20个字母，俄罗斯41个字母，拉丁23个字母，希伯来22个字母，梵文50个字母，波斯32个字母，土耳其33个字母，阿拉伯28个字母。

在开头我们提到初期的文字形态结绳文字和书契文字，接着提出了针对文字的一般论。在叙述完人们为什么创造文字之后，接着阐述了文字从图画文字到象形文字的转变，然后又向表音文字转变的过程。

在文字之中，存在着优劣之分，文字的变化可以用发展论进行解释。但如果从现在的观点来看，这种视角有可能会遭到批判。但是，这一说明内容，根据《万国事物纪原历史》的记录，在当时是广为流传的一种观点，这一点我们也需要在这里指出。

提到创造汉字的仓颉，即史皇氏和其兄弟，虽然这一内容并不常见，但也不是罕见的方式。而仓颉的两个大哥分别创造了梵文和伽卢国的文字，但对于伽卢国的文字并没有明确到底是怎样的事物。



据元代的文献记录，有在西域创造的文字，接着创造了蒙古文字。讲述史皇氏三兄弟的部分在朝鲜引起了争议，不是因为他们觉得这个说法有些荒诞，而是因为创造汉字的仓颉被放在了最后的部分进行叙述。

韩国的事例部分，用了薛聪的吏读文字使用和世宗的创造“国文”，对于薛聪的事例有补充类似“距离现在多少年”这样有点奇怪的表述。对于其中一部分的日本事例，我们在上节课的最后部分已经学习过了。这部分是对于片假名起源的叙述。

西方的文字是指象形文字，而罗马文字是指罗马字母。各国使用的字母数有所不同，从这个明细表里可见。这部分内容在《泰西事物起原》中也有所提及。

下面是“六经”这个项目。这是指六部经典作品，是指在中国完成创作，在东亚社会流通的，重要的六部儒家经典作品。如果没有儒学传入的地区，自然也不会有“六经”。各地区可能有类似指定的主要经典作品，像“几大福音书”这种方式，可能会存在这种事例，但是在这部作品中，并没有考虑到这种相似性，也没有进行叙述。

在这个项目中，值得关注的是，对于属于六经的经典作品的字数信息也分别进行了记叙。如标识的部分所示，除了六经之外，还记录了属于四书的每部文献作品的字数信息。当然这些作品的字数肯定不是张志渊亲自数出来的。在《小学紺珠》或《芝峰类说》等文献中，已经有出现这类型的数值。但是，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提到的字母数和《芝峰类说》这部作品中有所不同，这一点十分有趣。

接下来是“诗歌”这一项目。这个项目记录了“抒情-叙事-戏剧”这个文学体裁的三分法相关的内容，从很早就受到了关注。张志渊并没有日本留学的经历，他对这部分知识内容的表述有些不自然，而这部分内容可以被证实是出自《泰西事物起原》。虽然没有在西村茂树的原作中看到文学体裁三分法的相关内容，但是在澁江的《泰西事物起原》原本和翻译本中都有看到。

我们先来看看《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记载的内容的开头部分。

“希腊在很久之前已经开始有西洋诗的起源。希腊很早就出现诗了，在诗神Homeros之前的 Linus的诗歌，Ialemus的诗歌和Hylas的诗歌，拥有很长的历史。但是，很遗憾的是这些作品并没有流传至今，所以无法知道其中的内容。而流传到今日的Homeros的「iliad」及「odysseia」，应该是属于历史最久远的作品了。而诗又分为抒情诗，叙事诗和戏剧诗这三个类型，下方内容将对这些类型逐一进行叙述。”



据《万国事物纪原历史》的记录，《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对于西洋诗的叙述分布于很多不同的知识内容之中。

首先在开头部分叙述了四言诗，五言诗和七言诗，即汉诗体裁的起源。对于具体的叙述内容，虽然有些部分会引起争议，但是以字数为标准，进行起源的叙述，这个叙述方式本身并没有什么问题。接下来提到了韩国的诗歌作品麦秀歌，箜篌引和黄鸟歌。

接下来是对于西洋诗歌的叙述。虽然对于《泰西事物起原》的叙述内容有所精简，但基本上没有改变核心内容。尽管像利诺斯,伊阿勒摩斯,希拉斯等人名,张志渊应该很难知晓,但其摘抄记录的这些内容,应该没有很大的错误。接着补充了日本的事例《万叶集》,把这部分内容移到韩国的事例下面,表述显得更为自然。

最后,提到了有抒情,叙事和戏曲这三种类型,接下来对这三种类型进行了说明。《泰西事物起原》也采取了与此相仿的形式。对于三个类型进行说明的内容有出现错误,因为张志渊当时看起来并不具备获取正确知识内容的条件,出现错误也是一件很正常的事情。

接下来是“小说”这个项目。右边是《泰西事物起原》中的“小说”项目,显而易见的是《万国事物纪原历史》中也使用了其中一部分内容。根据《万国事物纪原历史》的结构来看,是和东方的事物一起进行叙述的,将相关内容置于中国的“稗官文学”之前。在《泰西事物起原》中,像“源远流长的小说”这样的表现,被改为了“小说的源流”,在意义上会有些差异。在礼罗皇帝的名字中,把“礼罗”写成“札罗”,出现了错字“札”,可能只是单纯的错字,因为作者对皇帝不太了解,所以才会出现这个结果。

将拥有优雅的审判官之称的佩特罗尼乌斯·阿尔比特的作品作为小说的起源,虽然这部分内容摘自《泰西事物起原》,但这也是一个有趣的观点。有评价指出,他写的《萨蒂利孔》这部作品,是讽刺小说的原型,但相关的内容并没有被广泛地流传开来。

接下来是“印刷术(2)活版”的项目。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把印刷术分为了三个项目进行叙述,这是其中的第二个项目。





首先叙述了朝鲜的金属活字，这部分内容值得一读。当然如果是对于活字这部分的内容十分关注的人，有必要参考叙述内容更为详细的文献。有部分内容可能会存在不正确或错误的问题，对于这些内容，在译注本的注释中有进行注明，但在这里我们就不详细说明了。

在接下来的部分之中，对日本的皇子进行了叙述。在课程开头部分，我们已经提到了刊行本的错字问题。在最后的的部分，通过荷兰和德国的事例，对木版活字和金属活字相关的内容进行叙述。对于其记叙的劳伦斯和古腾堡的发明时间，直到今日仍存在争议，这里是用肯定的语气进行叙述的。读者有必要注意这一点。

接下来是“书籍馆”这个项目。虽然其有多个释义，而在这部作品中的意思是保管书籍的设施。

在《泰西事物起原》中，叙述了埃及，希腊和罗马的事例。而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在叙述西方的事例之前，先记叙了中国和高丽等东方的书籍馆相关的内容。有必要分别看一下它们各自提到了什么样的制度或建筑。在最后的的部分出现了“皮斯時脫拉他斯”的汉字标识，请大家记住这点。先和大家预告一下，在下面我们即将提到的项目中也会出现这个人物。

接下来是“藏书楼”这个项目。这个项目与前文提到的“书籍馆”看不出很明显的差异，而在《泰西事物起原》中并没有这个项目。虽然使用的汉字有些不同，这里所说的“畢西斯到得”建立的设施和前面所提“皮斯時脫拉他斯”建立的建筑可能是同一个设施。

在藏书楼这个项目中，首先提到了在当时那个时期运营的主要图书馆的规模和预算等信息，应该是当时最新的信息。考虑到这一点，可以推测这些信息应该来源于当时的报纸或杂志。我们可以理解为，当时人们对于这部分内容较为关注。

像藏书楼这种事物，在东方肯定会存在，但这部分内容可能会和“书籍馆”收录的内容有重复，所以并没有列举出来。

这节课，我们学习了文学和书籍相关的一些项目内容。其中包含了一些不正确的，或与新增信息相关的必要的事例，如果我们一边比较东西方的事例，一边来阅读的话，对于现在的读者来说，这部分内容也十分有用。

下节课，我们将学习科学和教育相关的内容。



10-4 科学和教育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万国事物纪原历史》中文学和书籍相关的部分项目内容。我们这节课将学习科学和教育相关的内容。在《万国事物纪原历史》面世的初期，在多个学问领域之中，科学和教育相关的内容备受瞩目，其中也是一定有原因的。

这是第5章科学和第6章教育的目录。第22章机械或第11章的军事的部分内容，还有其他的很多内容中，都可以找到和科学相关的内容，主要都是科学技术应用相关的内容。我们这节课只针对被直接分类在“科学”类型下的项目进行研究。

在第6章教育中，出现了像成均馆或释奠这类型只在东方才有的事物，同时还提到了像社会学，哲学或大学这种“西方”才存在的事物。我们主要来看看，将东西方的事物放在一起进行说明的这些项目。

对于第5章的标题“科学”，作者也做了简短的叙述。这是一个比较特别的案例，我们先看看这部分相关的内容，再研究其他的项目。我把这节课我们要一起研究的8个项目标黄了。分别是科学，火，算术，几何学，土地测量术，师范学校，盲人学校和体操。

首先，我们来看看对于第5章的题目“科学”的说明内容。右侧是原文内容，这是在其他篇章中前所未有的形式。下面是对于叙述内容的解读。

“科学之术，是近代西方学者发明的，事实上与东方圣贤的格物学及六艺的术相仿。科学，不仅是西方人近代新发明的事物，也是教育界创造教育课程的原因。”

这里的格物学一般是指格物致知的学问，或者一般是传统学问，六艺是指礼，乐，射，御，书，数这六项基础教育的课程。一般是指传统学问或学问修道的方法。

这个在西方新发明的事物，与格物学或六艺并没有很大的差别，也促进了“教育界的教育课程”的设立。可以说科学的内容要素已经存在了，与其说这是张志渊个人的意见，倒不如说是当时广为流传的说法。

第5章的第四个项目是“火”。对于火的理解有很多种，但在这部作品中，主要是通过神话，探寻东西方对火的理解和观点。



东方的事例用了燧人氏的故事，接着叙述了在《周礼》中出现的改火。在《周礼》中，根据季节的不同，应该是用不同种类的树木进行引火，这种改变火种的方式，被称为“引火”。

根据季节使用的木材类型是由五行的颜色决定的。在五行说盛行的那个时期，这个说法不会被质疑。但是，从五行说的观点来看，夏天不会使用槐木或檀木。槐树或檀树木是散发黑光的树木，这部分应该改为冬天使用。

而且，西方关于火的内容，提到了普罗米修斯的神话。关于火有许多的发明或发现，这里没有一一列举，但是对于从神话中引用的内容，从当今社会的观点来看，多少有些缺陷。但从项目内容内部的连贯性来看，反而会比较自然。

接下来是算术这个项目。这个项目是计算或算数的意思。这是一个进行东西方事例对比的典型案例。

东方的事例有黄帝时期的隶首，《周易》中的叙述，来自周公的九章算术，以及唐代的一行，以及宋朝的邵雍相关的案例。一行完成了大衍历，邵康节撰写了《皇极经世书》，是一位向世人传授数理哲学知识的人物。了更正确的理解，我们有必要对各项内容进行深入探究。建议如果有同学对这些内容感兴趣，可以去看一下译注本的注释，以及东方数学相关的文献作品，大概深入了解到这种程度就可以了。

西方的事例部分提到了泰勒斯，以及毕达哥拉斯创造的九九乘法，即九九乘法口诀表。接下来是几何学这个项目。在原文中是配有图片的，我也准备了相关资料，大家一起来看看。在译注本里面，左侧也配有图片。我们先来看看泰勒斯的逸事，后面再来说毕达哥拉斯定理。事实上，在东方的传统数学中也有运用与毕达哥拉斯定理相似的解法，可能是因为张志渊不了解这一点，所以在作品里也没有提及。

接下来是土地测量术的项目。这个项目记叙了土地测量的技术和工具，以及需要土地测量术的理由。

在开头部分提到了周公使用的土圭，而且还提到了相较于这一时期更早的夏朝，竖亥测量土地长度，这一逸事。因为展现出来具体的土地测量的面貌，所以这段说明内容更接近于神话性质的描述。竖亥是夏朝大禹的臣子因积极参与治水而闻名，据说他们为了测量土地的长度，走了超过5亿步。

这个逸事在《山海经》里也有所记载，这与现在流传的《山海经》的叙述有些差异。在《山海经》中，说竖亥右手握着算筹，测算的步数也有些不同。



在西方，由于尼罗河的泛滥，经常需要重新划分田界，因此当时的土地测量术十分发达。没有列举土地测量的具体事例，是因为之前已经讲述了“起源”。

接下来是属于教育领域的师范学校项目。师范学校是西方的教育制度的产物，这一点大家很容易想到，但是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对于这项内容的叙述并没有止步于此，从历史记录到东方的起源探究都涵盖了。

在这个项目之中，先叙述了韩国的事例。在新罗的教育制度中，探寻师范学校的起源，发现了在高丽为了发展地方和中央的教育，而培养师范人才等等的事例。在最后提到了太皇帝时期（即高宗时期）的育英公院和汉城师范学校，叙述了师范学校出现的具体过程。

接下来提到了汉朝文帝时期蜀郡的太守文翁的逸事，像这样打乱时间顺序的排列方式并不常见，因为不是真正意义上的师范“学校”，所像这样解释读者其实也可以理解。在最后的的部分，提到了德国的弗兰克设立的师范学校，超越了“师范”的层面，谈到了“师范学校”相关的内容，应该是第一次提到相关的内容。

接下来是盲人学校这个项目。在盲人学校这个项目中只提到了西方的事例，这也是一件很自然的事情，张志渊应该也又被很努力地找东方的事例。

在盲人学校的起源部分，提到了法国人霍维设立学校的事情。奥地利的音乐家帕拉蒂斯帮助霍维创造了“凹面文字”。帕拉蒂斯是贵族的女儿，在小时候失明了，但因为其具有出众的记忆力和听力，所以成为了钢琴家。书中说霍维接受了帕拉蒂斯的帮助，创造了最初的“凹字”，这里所说的“凹字”的表述可以说是不正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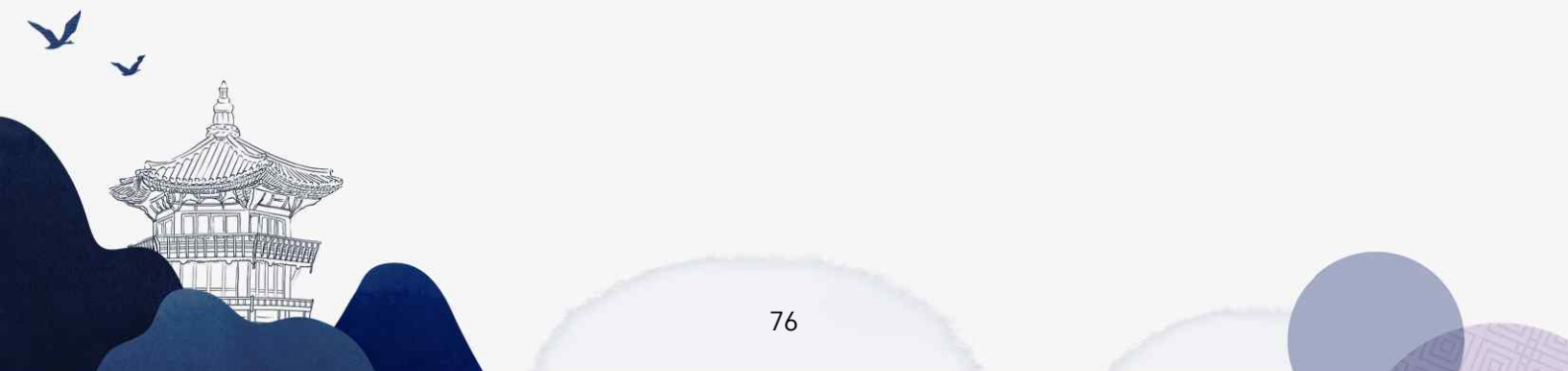
东方的事例部分，很难被看作是“学校”，不知道是不是因为这个原因，张志渊先声明了一下“据查”，然后写下了以下内容。“在东方，从很早之前开始，有专门帮助盲人学习音乐的乐手，被称为“瞽师”。在韩国，这些人也从事巫术或算命。”

接下来是“体操”这个项目。右侧是《泰西事物起原》的第11章体操项目的原文，包含卫生相关的内容。《万国事物纪原历史》在开头部分整理了《泰西事物起原》的内容。起源于希腊，在希腊语中是“Gymnastike（体操）”等主要内容也被完整地保存了下来。最后，也是先声明一下“据查”，然后记录了在《泰西事物起原》中不存在的内容。那是与斯巴达的身体检查相关的内容，相关内容应该是来源于报纸或杂志。



这节课，我们学习了科学和教育相关的部分项目的内容。在这部作品中，叙述了神话相关的内容，以及提到了东西方对比的内容。

这节课，虽然我们往后延迟了一点，有不少涉及东方或西方的内容，这部分内容也十分值得一读，可以在一定程度上反映当时的知识水平。建议大家下课后可以都直接找相关内容阅读一下。在下节课，我们将学习政治和经济相关的内容。





10-5 政治和经济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万国事物纪原历史》中科学和教育相关的部分项目的内容。这节课，我们将学习《万国事物纪原历史》中政治和经济相关的部分项目内容。

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与这个内容相关的篇章有第10章的政治，第15章的商业和第6章的农事。由此可以推断在这本书发行的时期，并没有像现今社会这样有明确的分界线，是一个独立的项目内容。

这是第10章政治，第15章商业和第16章农事的目录。这些是政治和经济事物相关的部分，但是构成元素与现代社会有所不同。

在第10章政治中，开头部分记录了租税，户布，换粮等内容，这些内容都和租税有关。从传统的意义上看，在“政治”中，赋税是最为关键的问题，所以才将相关的内容放在前面的部分进行叙述。

从另一方面来看，这样的结构与《泰西事物起原》相比有一定的差距。在《泰西事物起原》中，该篇章的题目为政治法律，里面收录了租税，证券印花，商准和国债等内容与刑罚等内容。但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删除了“刑罚”相关的部分，而删除的理由也并不明确。

在第15章的商业和第16章的农事中，都可以看到与农业生产相关的项目内容，我们这里没有办法全部都一一提及。但是，还是有很多部分值得一读，建议大家下课后可以分别选取一段来研读一下。

我们一起探究的项目一共有9个，我用黄色进行了标识。分别是租税，国旗，证券印花，投票法，国债，银行，当铺，耕作和火轮犁。

接下来是政治的第一个项目租税。因为内容量比较多，所以分为了（1）和（2）两部分。接着是原文的部分。首先我们阅读一下整体内容，然后再针对必要的部分进行探究。

租税 (1)



轩辕氏是最初划分井田，并订立了公田和十分之一的租税相关规则的人。这是租税的起源。秦朝，孝公12年开阡陌，并第一次制定了田赋制度。后世将此视为田赋的起源。【距离现在2250年前】晋朝，成帝咸和初年，首次对百姓的农田进行了测量，每一亩需要缴纳3升的米作为税金。这是田税米的起源。【距离现在1580年前】汉朝，高帝4年，最初实施了算赋制度，15岁至56岁的人缴纳了120文的税金。孝昭帝4年征收了口赋，7岁至14岁的人缴纳了23文的口钱。【距离现在1990年前】这是人口税的起源。

-仅限于探究的事物，历代租税和赋税流程因为比较复杂，所以无法全部列举出来。-

租税 (2)

在韩国，箕子在平壤划定了都邑，首次区分了丁田，而且制定了租税和赋税制度。新罗圣德王21年，首次向百姓发放了丁田。【距离现在1186年前】在高句丽，征收布5匹和谷物5石作为税金。游人3年缴纳一次税金，10人可以一起缴纳一匹细布。租是每户缴纳1石，其次是7斗，最后是5斗。在百济，将布，绸缎，麻布和米作为赋税，根据每年的丰收或饥谨来决定。在日本，孝德天皇首创了户籍和田亩法。并且，制定了租庸调制和里长。【距离现在1265年前】并且，文武天皇10年首创了田税法。【距离现在1203年前】在西方，在罗马首创了这个制度。

我整理了中国的历代租税制度，应该是相关的内容比较复杂，所以 “在这里无法全部记录”。首先提到了丁田制，分别说了田税和人口税的起源。

在韩国的事例中，列举了箕子，新罗圣德王，高句丽，百济时期的事情，而日本的事例则举了孝德天皇和文武天皇时期的事情。最后，简短地对西方相关的事例进行了叙述，“在罗马首创了这个制度”，而这个描述应该是来源于 《泰西事物起原》。在 《泰西事物起原》中，推进税金的法制化，应该是罗马时期的事情。

接下来是国旗这个项目。在 《泰西事物起原》中并没有这个项目。不知道是不是因为这个原因，即使在那个时期人们很关心这个内容，但是只收录了韩国和日本的事例。在韩国的事例中，首先提到了传统的象征，然后提到了使用国旗的起源。相关内容如下所示。



“近年来，各个国家开始交流往来，商船和战舰都使用了国旗，来标识各个国家的徽章。韩国原来就对太极文化十分尊重，且有崇拜之情。所以在官衙的门上都画了太极。太皇帝13年，日本和其缔约了保卫条款的国家的徽章都定为了太极章。太皇帝22年，与北美合众国缔结了通商条约之后，在派遣使节的时候，使用了太极的徽章。从此开始，太极徽章在全世界得以广泛使用。在日本，孝明天皇6年，首次定下来将国家的徽章为日本旗，并让每艘船都挂上了日本旗。

接下来是证券，印花的项目。首先提到了中国的事例，然后叙述了西方的事例，西班牙腓力2世时期发行印花的事例。而在中国的事例中，虽然并没有命名为“印花”，但是相关事物本质上和印花具有相同的功能。

中国的事例应该来源于《文献通考》，根据作品的记录，应该是在宋朝开宝2年开始出现征收印契钱的情况。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的“3年”，有可能是错误的记载，也有可能是在设定年代的时候，使用了即位年的处理方式，所以出现了标准上的差异。在宋朝，在签订了买卖契约之后，需要向官衙缴纳印契钱，而官衙会向交易的双方发放印契作为公证的证明。张志渊在作品中认为其具备类似印花的性质。

接下来是投票法项目。提到了希腊雅典的“贝壳追放制”和美国总统选举。

对于美国总统选举的叙述内容虽然不能说有错误，但也不能说是完全正确的。在美国选举第2代的总统时，首次实施了投票的方式，因此，在1796年12月投票后，第二年1797年总统就任。一方面，约翰·亚当斯的汉字标记有些特别，这些标记使用了姓放在前面的方式，即“亚当斯·约翰”这种的表现方式。

接下来是国债这个项目。“国债”是当时韩国社会普遍关注度比较高的“事物”。所以，与西方的国债数额和国债的历史相关的信息也不少，我们在课上对这部分内容就只进行简单的说明。

在中国事例部分提到的避债台，是指君主建造的为了逼债而用来逃跑的楼台。东周最后的君主赧王，为了战争筹措经费向有钱人借了钱，但是在战争中输了，饱受追债的折磨，最终为了逼债建造了这个楼台。

唐朝的事例，与赧王的事例相仿，但从官方的方式来看，多少存在着差异。国债和私债有所不同，即使过程是相似的，只有唐朝的情况可以被称为国债。



在韩国的事例中，列举了高丽时期的借钱令和乙未年时期从日本引入了贷款这件事，而在日本事例的部分，提到了将关税作为担保物，收取外债进行铁路建设的事例。在那个时期，这些时间上相近的事例，引起了社会的广泛关注。国债这个项目，反映了《万国事物纪原历史》是一部反映了当时社会关注话题的作品。

接下来是银行的项目首先提到了中国周朝的九府圜法和明治5年设立的日本国有银行，然后再叙述了欧洲银行的起源。欧洲的事例应该是来源于《泰西事物起原》中银行的项目，也有可能包含了来源于其他的资料或信息的内容。因为808年这样的说法在《泰西事物起原》中并没有出现。

最后补充了对英国银行的叙述内容，但这种做法的原因还不太明确。有人可能觉得是因为其是中央银行的起源，所以叙述英国的事例，但其实瑞典的中央银行设立的时期更早，所以这个理由并不成立。有人推测是来源于报纸或杂志等第三方资料，但是具体是什么资料还不确定。

接下来是当铺的项目。一起列举了中国的质剂和西方的当铺。两者都可以通过后代的用语，对其起源相关的内容再次进行确认。

在《周礼》中，提到的质剂是官方发行的流通汇票，清朝的当铺被称为“质屋”，这个地方主要进行“典当”及其相关的行为。同样的逻辑，西方的伦巴第人首次开了当铺，所以基于此，可以再次确认“伦巴第”是与当铺相关的词汇。在英语中很难找到这种例子，但是在德国或俄罗斯的词汇中这种现象很常见。

接下来是收录于农业的耕作项目。首先列举了中国的事例，接着列举了西方和韩国的事例。其中，神农氏首次创造农具以及传授耕作技术，而被称为“耕作土地的人”的该隐的相关事迹，应该是属于神话相关的领域。从这一点来考虑，最后提到的新罗智证王的牛耕，即用牛进行耕作，这段内容反而看起来有些突兀。

接下来是火轮犁及水车的项目。“火轮犁”是一种使用蒸汽驱动的农具，而且在这里也提到了1855年在美国制作了各种不同的农具。考虑到时期以及相关的内容，可以推测相关内容应该是来源于报纸或新闻。

在日本、中国和韩国研发制作的水车，实际上并不是“火轮犁”。但是，两者也有相似的地方，都是使用了水力驱动。尽管采取了附录的形式，“火轮犁”和水车之间也并不是没有共同点。



这节课，我们一起学习了 《万国事物纪原历史》的原文内容，虽然也只一起探究了部分的内容。我们探究了类书的特征和从荷兰，到日本和中国的知识交流形式等内容，同时我们需要考虑到传统知识人在知识急剧变化的环境下，展现出的奋斗的面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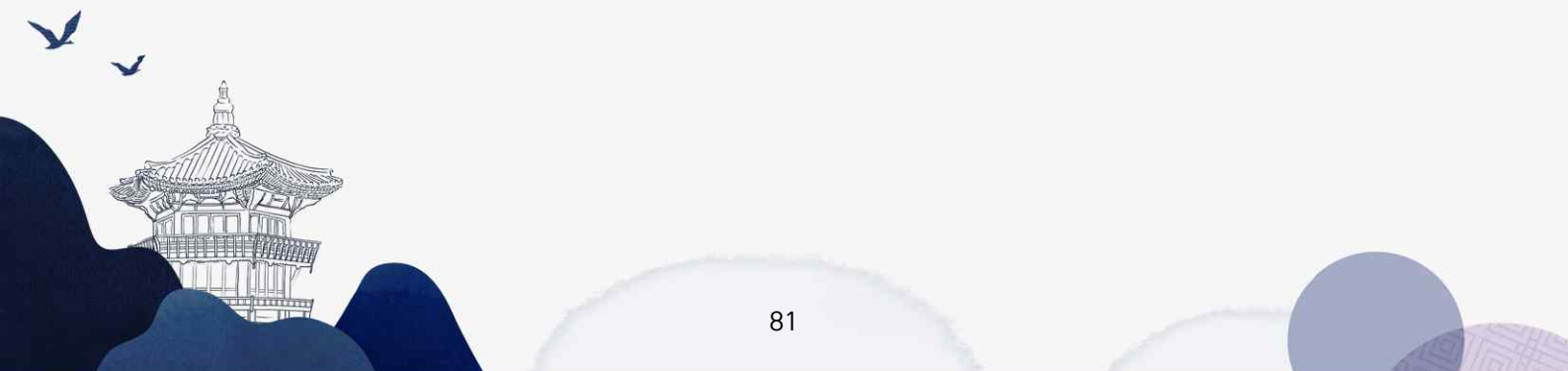
在上节课我们有提到可以窥见“唐代的常识”的关键项目，我们就一边学习这部分的内容，一边结束这节课。

第一个事例是对西方的地名和人名使用有误的叙述内容。巴约讷和皮斯托亚是城市的名称，但是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却被错误地记载为了人名。事实上，这个内容应该是来源于 《泰西事物起原》，对于当时知识积累有限的人们，是有可能犯下这种错误的。

第二个事例是“蒋英实”的名字错误写为“蒋英”，应该也是理解有误。蒋英实是在韩国科学史上评价非常高的人物，但是在100多年前，还不是一位广为人知的人物。张志渊在作品中三次提到了蒋英实，但是全部都标记为了蒋英。可能是因为在那个时期这个人物并没有像现在那么知名。

这些有误的事例，并不仅仅是供大家消遣的事例。而是在 《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及其背景下，体现出了在那个时代知识人对于知识的努力追去，并且也从侧面反映出了作品创作时代的背景。对于在课上我们没有一起学习的部分，大家可以下课后自己阅读一下相关的内容，这种努力应该也会对你们的个人成长和发展有帮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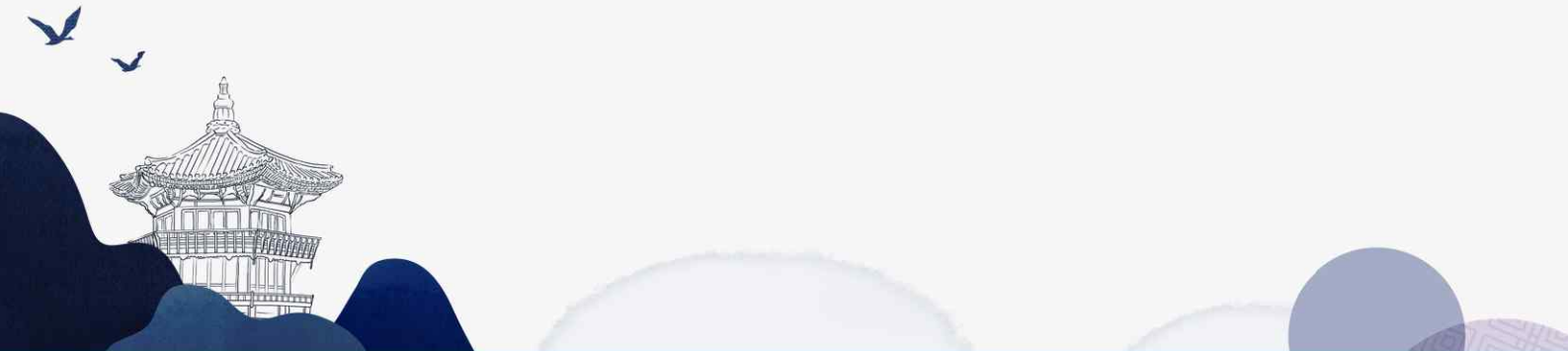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我们《万国事物纪原历史》课程到此就全部结束了。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구성 및 간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만국사물기원역사》는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제22장 기계의 마지막 항목인 ‘기기’에는 다른 항목에서 언급한 사물이나 사건을 다시 서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나타난다.
- ③ 유서(類書)의 ‘천-지-인-사-물’ 가운데 ‘천-지’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천문학과 지리학에 해당하는 근대 지식이 널리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 ④ 원고본과 간행본의 차이 가운데에는 검열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는 원고본 제출 이후에 새로 얻은 지식을 추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유서의 형식은 다양하지만, 그 주제는 대체로 ‘천-지-인-사-물’의 순서로 배열됩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전대 유서에 비해 ‘사-물’에 해당하는 지식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사-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지식이 늘어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새벽과 황혼에 올리는 큰 종'은 '종'이라는 사물을 다루고 있지만 '천문'에 포함
5분 되어 있다. 다음 중 그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 ① 종을 올려 시간을 알렸기 때문이다. 시간은 천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 ② 종은 신성시되는 악기였기 때문이다. 사물의 위계에서 '신'은 가장 높은 존재였다.
- ③ 종은 제사와 같은 의식에 사용되는 악기였기 때문이다.
- ④ 거대한 종은 값비싼 보물이었기 때문이다. 보물의 목록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답 ①

해설 '새벽과 황혼에 올리는 큰 종'은 《증보문헌비고》의 '신흠대종' 항목을 간추린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종이 시간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천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시간과는 무관한 일본의 종이 나타난 것은 부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03

5분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제4장 ‘문사’에는 책을 보관하는 시설을 두 항목에서 다루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서적관’에서는 중국, 고려,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순서로 책을 보관하는 시설의 기원을 서술했다. 다음 중 ‘책을 보관하는 시설’과 유사한 항목으로 그리스, 이집트, 영국의 도서관의 기원과 함께 규모와 예산이 큰 도서관의 사례를 서술한 항목은 무엇인가?

- ① 전필인서
- ② 육경
- ③ 장서루
- ④ 인쇄술

정답 ③

해설 ‘장서루’ 항목에서는 규모와 예산이 가장 큰 도서관인 ‘파리 왕실도서관’을 언급하였고, 이어서 그리스, 이집트, 영국 도서관의 기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피시스트라투스가 만든 그리스의 도서관은 ‘서적관’ 항목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자 표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헌에서 유래한 지식일 가능성이 큼니다.





04 다음은 《만국사물기원역사》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하나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만한 말은 무엇인가?
10분

“ 【 】의 설은 근대 태서의 학자가 발명한 것인데, 실상은 동양 성현의 격물학 및 육예의 술(術)에 지나지 않는다. 태서의 사람들이 근대에 새롭게 발명하여 교육계의 교육 과정으로 만든 까닭에, 그것을 【 】이라고 하였다.”

정답 과학

해설 제5장의 제목인 ‘과학’에는 제목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사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과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양에서 새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차이라면 태서 즉 서양에서는 ‘교육계의 교육 과정’으로 만들었던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서양 사물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05 다음은 무엇의 기원에 대해 설명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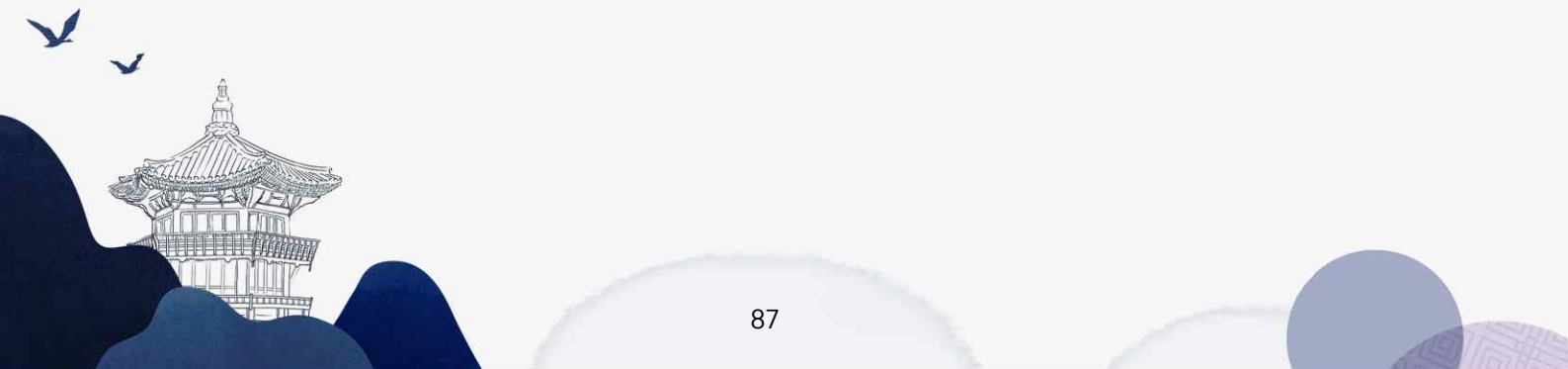
5분

한나라 문제 때에 문옹(文翁)이 촉군태수(蜀郡太守)가 되었는데, 촉 땅이 외지고 황량함을 보고서 고을의 하급 관리 가운데 장숙(張叔) 등 10여 명의 명민하고 재주 있는 이들을 뽑아 서울에 가서 박사에게 수업을 받도록 하였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을로 돌아오자 사범이 되게 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자제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천하에서 이를 본받아 행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080년 전 무렵】

- ① 맹인학교
- ② 서원
- ③ 대학교
- ④ 사범학교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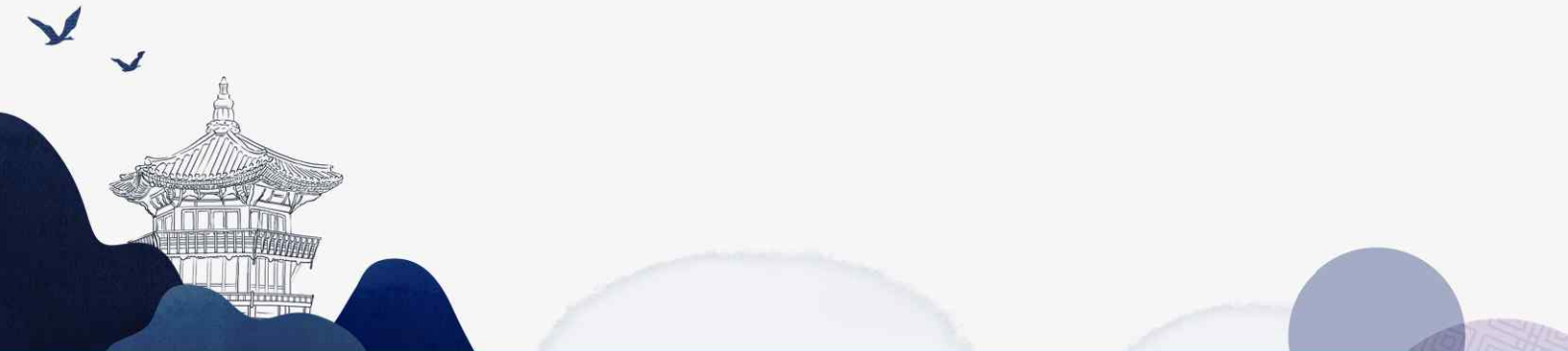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해설 '사범학교'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장지연은 중국에서의 기원을 '한나라 문옹'의 행정에서 찾았습니다. 사범은 곧 교사를 뜻하는 말이니, 재주 있는 하급 관리를 교육하여 촉군 백성들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이 일화는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만국사물기원역사》는 근대로의 전환이 이뤄지던 1909년에 조선의 전통적 지식인 장지연이 편찬한 문헌이다. 장지연이 1864년에 태어나 해외 유학의 경험이 없었고 한문 이외에는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국의 사물을 다루겠다는 의도 자체가 무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서술된 내용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다. 그렇지만 비교사적 시각을 도입했다는 점 자체는 학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은행' 항목의 서술이다. 오류를 바로잡고 필요한 사항을 보충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은행' 항목을 서술해 보자. (60분)

중국 주나라 때의 구부환법(九府圖法)이 곧 은행의 남상(濫觴)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5년에 처음으로 국립은행을 설립하였다.

808년—혹은 1057년이라고도 한다—에 롬바르드[Lombard, 倫巴多]의 유태인이 이탈리아 베네치아[Venezia, 威尼斯]에서 처음으로 은행을 설립하였다. 1664년에는 영국이 처음으로 은행을 설립하였다.

참고

1909년의 조선 지식인과 비교하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과 정보의 양이 늘어난 만큼 그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모은 정보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수강생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을 법한 '은행'이라는 항목을 제시했는데, 오류를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작업을 통해 '백과사전' 특히 '만국 사물의 기원'을 다루는 백과사전 편찬의 과정을 스스로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만국사물기원역사》 역주본의 주석 일부인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부환법(九府圜法)”은 주나라의 태공망(太公望)이 만든 제도이다. 구부는 화폐(貨幣)를 맡은 9개의 관청을, 환법(圜法)은 화폐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법을 말한다. 원래 환(圓)은 “고르게 하고 통하게 한다[均而通]”는 뜻을 가진 말이다.

▶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가 미국의 금융 제도를 본뜬 국립은행(national bank)의 창설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1872년(명치 5) 국립은행조례(國立銀行條例)를 포고하였다. 이 조례에 의거한 최초의 은행은 1873년 도쿄에 설립된 제1국립은행이었다. 이후 전국에 153개에 달하는 국립은행이 만들어지자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1882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행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을 설립하였다. 이후 기존의 국립은행들은 순차적으로 일반 은행으로 전환시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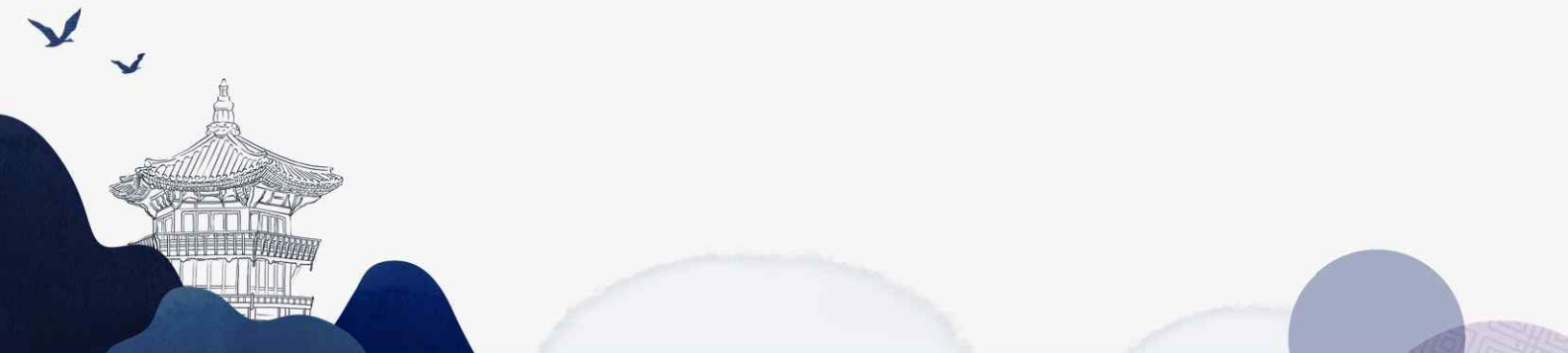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 유럽에서 은행이 처음 설립된 시점을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유대인 가운데 은행의 기능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1057년”이라고 한 것은 “1157년”의 오타일 가능성이 있다. 니시무라 시게키의 《서국사물기원》에서 베네치아에 은행이 설립된 시점을 1157년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십자군 전쟁 및 영국의 헨리 2세(Henry II, 재위 1154~1189)의 정책 등과 관련하여 유럽 은행의 기원을 설명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1057년” 또는 “1157년”의 시점을 주석으로 붙인 것을 보면, 장지연이 《서국사물기원》과는 다른 계열의 문헌에서 은행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영국에서의 은행의 기원을 따로 거론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영국 최초의 은행은 1672년에 설립된 씨 호아 앤드 코퍼레이션(C. Hoare & Co.)인데, 여기서 언급된 “1664년”과는 거리가 있다. 영국을 주어로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중앙은행(central bank)”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英蘭銀行, Bank of England)이 설립된 시점은 1694년이다. “1664년”이 “1694년”의 오타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1668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스베리어릭스 은행(Sveriges Riksbank)이므로, 영란은행이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만국사물기원역사, 전통과 근대의 지식을 아우른 세계 만물 백과사전, 장지연 저, 황재문 역해, 한겨레출판, 2014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전문을 번역하고 주석을 붙인 책입니다. 목차에서 전체 구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 본문의 번역과 주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원전의 표기에 관심이 있는 분은 마지막 부분에 수록한 '원문 교감본'을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 조선 기록문화의 역사와 구조 1: 지식에서 기록으로, 조계영 외, 소명출판, 2014. (규장각 학술총서 3)

8편의 논문 가운데 일곱 번째 수록된 황재문의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성립 과정과 지식 체계의 특성>은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형성 과정을 학술적으로 점검한 첫 번째 논문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결함이 있지만, 표기 및 서술 측면에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